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4월 11일(음력 2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623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동국대 재학
조계종 스님

처우 개선 시급

기숙사 백상원 · 혜광사 비 새고 붕괴위험…"장학금제도 불합리"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에 대한 처우가 미약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종비생들의 기숙사인 화계사내에 위치한 백상원과 평창동 혜광사의 열악한 시설. 종비생들에 따르면 33명이 거주하는 비구 스님 숙소인 백상원은 1991년 완공 후 부실시공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수에 화학물질인 에폭시가 섞여 나오는가 하면 건물 자체 방수시공을 하지 않아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구니스님 13명이 거처하는 혜광사는 상황이 더 안좋다. 누수로 복도, 천장, 실내벽면에 물이 흘러내리고 장마철마다 수행관 내부와 주변의 배수시설 미비로 보일러실 수각장이 잠긴다. 심지어는 경사면이 50도~60도 가까이 되고 건물이 낡아 붕괴우려마저 있다.

석림회 회장 혜공 스님은 "호화로운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3월 28일 열린 제 173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비생 수행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숙사 문제는 장학금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등록금의 70% 면제 혜택을 받는 종비장학생이 되려면 기숙사에 입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방사가 적다보니 현실적으로 기숙사 신청자가 많지 않다. 또한 기숙사가 조계종 기초교육기관의 역할하다보니 입방자 대부분이 불교대학재학중인 사미와 사미니다. 정서상 타과에 다니는 스님이 입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대학원생들은 입방조차 할 수 없다.

동국대의 승려 장학금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부 승려 장학금은 불교대학에 100% 편재돼 있다. 불교대학에 다니는 승려는 80%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동국대 장학담당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불교대학 학생이 아니면 승려장학금 혜택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원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낫다. 일반대학원생중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에겐 65%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특수대학원생에게는 상황에 따라 20~40% 정도 차등 지급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 행정대학원에 재학중인 혜안 스님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공직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면서 조계종 승려는 30% 밖에 받지 못하며, 동국대 교직원들은 50%이상에서 본교직원인사위원회 추천서를 제출하면 전액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계종 승려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해보니 불교대학이 아닌 타 단과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조금 더 진상 조사를 한 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당국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해인사 스님들의 나무심기 식목일인 4월 5일 해인사(주지 현응 ·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가야산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6년생 1000주와 층층나무 300주, 홍송 200주를 마장동 일원 3000여평의 땅에 심었다. **합천=고영배 기자**

인물經 세상鏡

우리 세상의 진정한 장애는?

죽으러 갔다가 사는 길을 얻은 아이. 그 아이의 어미는 가난과 뇌성마비로 고통 받는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함께 죽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그냥 죽기 억울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한 말 한 마디를 듣고 싶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녀는 해인사 백련암으로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다. 성철 스님은 호되게 꾸지람을 내리셨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했다. 화가 한경혜(32)의 3000배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녀는 절을 하며 죽는 길을 삶의 길로 열었다. 처음엔 한번도 힘겹던 절을 수를 늘려가며 매일 했고 3000배를 100일 간 지속하는 혼자만의 결사도 여러 차례 했다. 절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화가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게 했다.

▽기적의 오체투지를 세상에 알려 절 수행 바람을 일으킨 한경혜. 그녀가 인사동에 나타난다. '물 속에서 물을 보다'란 주제의 전시회다.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화랑에서 여는 그녀의 전시회는 '인간 승리' 운운의 찬사를 원치 않는다. 이미 그런 말들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생명의 근원을 더듬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 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두 다리와 왼팔을 쓸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단에 선 방귀희씨의 일성. 동국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방송작가인 그녀는 계간 <솟대문학>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문학의 향기를 나누고 있다. 그녀에게 장애라는 말은 부정 보다는 긍정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말했다. "이런 날이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그러나 그날 하루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 세상의 진정한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혜거 스님 '무엇을 믿고 의지하나' 4월 18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정원: 선착순 40명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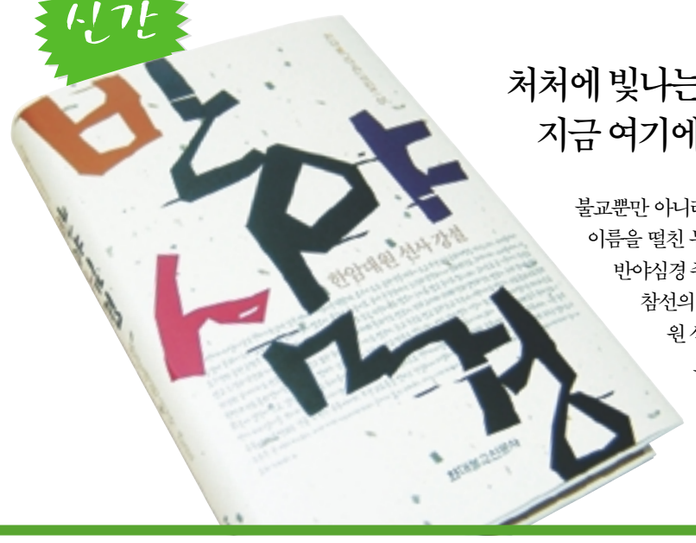
I Love Buddha /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신간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세계화의 '당간지주' 세웠다

태고종 아메리카 · 유럽교구 설립…외국인 스님 6명 수계



태고종은 4월 4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종무원장 임명 및 교구인정서 수여식, 아메리카-유럽교구 외국인스님 수계식을 개최했다.

태고종이 아메리카-유럽교구를 설립하고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

태고종은 4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초대 종무원장 종매 스님(불교학 박사, 미국 로욜라대학 교수)에게 임명장과 교구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아메리카-유럽교구 교구인정서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종단의 해외포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에 현지 포교를 담당할 교구종무원을 설치함으로써 해외포교를 아메리카와 유럽지역으로 확대해 종단의 해외포교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종매 스님은 "전 종단을 통틀어 한국불교에서는 처음으로 해외교구가 설립돼 초대 종무원장을 맡게 돼 책임감이 앞선다"며 "한국불교와 그 지역의 사상과 전통을 가미해 포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고종은 중앙금강계단에서 아메리카-유럽교구 사미(니)계 수계식도 거행했다. 수계 스님들은 미국인인 혜문(Mose Ensley) 혜월(Nile Warner) 혜공(Derek Warner) 혜중(John Maxwell) 스님과 캐나다인 혜광(Robert Gallop) 스님, 오스트리아인 묘현(Karin Sima) 스님 등 외국인 6명. 이들 스님들은 많게는 20년 전 행자교육을 받고 가수계를 받아 현지에서 대학교수와 의사, 태권도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수행 및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태고종 아메리카-유럽교구의 스님들은 수계식 후 한국불교의 수행과 교화 및 불교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9일까지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님들은 북한산 태고사 보우 국사 부도탑을 참배 한 뒤 순천 선암사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친견했다. 또 보성 금둔사, 서울 봉원사 · 법륜사 등에서 차문화, 발우공양, 전통예불, 영산재, 불화단청을 체험했다.

종매 스님의 맏상좌인 혜월 스님은 "한국에 여러번 왔지만 이번처럼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기는 처음"이라며 "미국에 돌아가면 많은 분들에게 한국불교를 얘기하고 포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혜공 스님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 것 같다"며 "태고종을 위해 일하는 승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방불교대학(학장 자월)은 4일 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에 정부등록 종교학교로 운영중인 불교통신대학(IBS) 확장 종매 스님에게 해외분교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interview

아메리카 · 유럽 종무원장

종매 스님

"사찰관리 · 포교 역점"



"정과 혜를 바탕으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해외교구로 만들겠습니다."

4일 태고종 아메리카-유럽교구 초대 종무원장으로 임명된 종매 스님(사진). 스님은 "현재 아메리카와 유럽에 운영중인 태고종 사찰 10여곳의 관리와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불교통신대학(IBS)을 졸업하는 외국인 10명을 출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종매 스님은 1978년 미국에 보광사를 건립하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불교관장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상생의 원리 · 자연미 살려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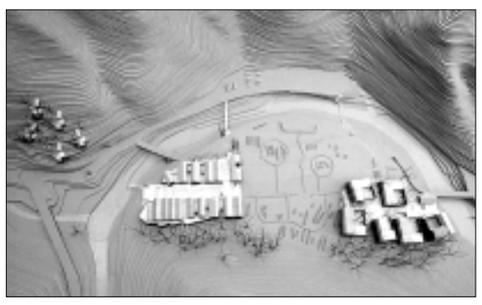
전통불교문화센터 윤곽 드러나…내년 완공 예정

공주 마곡사 인근에 건립 추진중인 전통불교문화센터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4월 4일 실시설계안을 공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4년부터 전통불교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가마터가 발굴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설계안은 국내 유명 건축가로 꼽히는 이로재 건축사무소 승효상 대표가 완성했다. 그는 현대건축 속에 전통건축의 공간과 삶의 철학을 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한다.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약 4500평의 대지에 1650평 규모의 교육연수시설과 1400여평 규모의 숙박후생시설로 구성된다. 건물은 3층으로 제한해 마곡사에서 이어지는 산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각 동은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도록 분할해 배치한다. 전통적인 사찰건축의 '채의 분리'를 계승한 것으로, 동과 동사이의 이동에서 자연과 동화 · 조화를 중요시 여긴 것이다.



전통불교문화센터 모형.

숙박동에는 전통사찰에서 쓰이는 조경법을 계승해 돌, 흙, 풀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독립적인 안마당을 조성한다. 툇마루도 설치해 마당과 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교육연수동은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지만 개별 채들은 중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개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특히 3층은 전통적인 온돌방으로 만들어 간화선 등 각종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석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장은 "2008년까지 자부담 122억원 국고보조금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창종 60주년 행사 '풍성'

진각종 '만다라 사경대회' '인터넷 게임' 등 개최

진각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세대별, 연령별, 조직별 맞춤형 포교를 위해 자성동이(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각 교구에 분산돼 있는 자성동이부터 청년회, 신도회까지 참여를 유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만다라 사경대회' '인터넷 게임대회' '통리원장배 미니축구대회' 등을 개최한다.

'만다라 사경대회'는 4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심인당에서 자성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대상으로 연다. 수상자는 6월 1일 발표예정이며 총 상금은 245만원이다.

또 '인터넷 게임대회'는 학생회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금 200만원을 걸고 각 교구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2회 째를 맞는 자성동이 미니축구대회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위덕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16개(저학년 8팀, 고학년 8팀)팀이 참가해 진행된다.

이밖에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족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개 교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대회는 족구 외에도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기, 교리퀴즈, 장기자랑 등을 열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애들아 인터넷에서 만나자"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포교사이트 구축

인터넷으로 부처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린이 포교 자료실(사이트)이 구축된다. 어린이 포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도 개발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중인 이 사업은 멀티미디어 포교를 위한 컨텐츠 개발과 어린이 법회를 위한 대단위 인터넷 자료실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어린이 법회 지도자들을 위한 자료가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또 전국 단위 사찰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별 법회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사찰 및 지도자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는 어린이 포교행사 등을 안내하는 '행사',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제공되는 '자료실', 지역별 사찰법회 현황 등을 관리하는 '전산관리 시스템', '권역별 어린이 지도자 모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포교원은 올 10월말 정상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직할종회의원 종성 스님 당선



조계종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에 종성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종성 스님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직할교구 보궐선거에서 193표를 얻었다. 지일 스님은 134표, 동출스님은 8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에는 총 유권자 863명 중 440명이 참여했으며 유효표는 416표, 무효표는 24표였다.

1984년 사미계, 87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성 스님은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남동우 기자

전통조계종 각암 종정추대

전통조계종은 4월 3일 총무원장 능인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초대종정 각암 스님 추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종정 각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화합으로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60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라.
- 범망경 중 -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정해년 불기 2551년
· 입재일 2007년 4월 21일(음. 3월 5일) 토요일
· 회향일 2007년 4월 23일(음. 3월 7일) 월요일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대화상 전계대화상 중산 혜남

동 참 금 50,000원

문의 및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각 말사(암) 종무소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밀양 표충사 (055)352-1150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 보현사 (02)355-9815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울 산 : 공업탑 로타리 제일주유소 08:00
무거 로타리 고속도로 진입로 08:10
◉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스위스에서 한국불교 축제 한마당

법계사 · 비로자나국제선원 · 레만한인협 12일부터 '한국문화축제'

스위스 유일의 한국사찰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 영국 출신인 스님은 1976년 스리랑카에서 소승불교로 출가했다. 그러던 중 前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 제자로 국제포교 서원을 세우고 스리랑카에서 유학중인 원명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는다. 1984년 울산 석남사에서 인홍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은 99년까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영어로 불교를 가르쳤다.

그 때 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무진 스님에게 영어를 배우다 92년 출가했다. 원명 스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라져버린 연등국제불교회관의 맥을 이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우 스님이다.


무진 스님


자우 스님

이 두 스님이 스위스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법계사와 비로자나국제선원, 레만한인협회는 2차례에 걸쳐 '한국문화축제'를 진행한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로잔 근교 유서 깊은 라사사성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제네바시 까르주센터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축제에서는 신은숙 인강서예문인화 연구소 원장 등이 서예와 사군자를, 자우 스님과 조규성 씨가 전통다도를, 허명남 한마음 의복연구원 원장이 한복 및 염색을, 금산 양계승 선생이 도자기를, 강성채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가 대금을, 문정미씨 외 현지 한국교포들이 전통놀이를 각각 선보인다.

자우 스님은 8일 동안 1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의 예술가들, 종교인들, 각국 대사 및 고위관리들, 시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스위스 현지 목사와 신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하고 있다.

자우 스님은 "유럽에서 한국문화를 통해 종교 간의 화합은 물론 동양문화의 전달로 물질보다 정신문화에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포교의 장을 넓히고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 간화선을 유럽인들에게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명 스님은 입적했지만 후학들이 스위스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 · 일 청소년불자 문화교류 한다

아시아불교도협 · 파라미타 대표단 상견례



한국과 일본의 불자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에 나선다.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오야코 카이, 조동종 광염사 주지)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표단 상견례(사진)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불교도협회는 산하에 한일청소년교류지원실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일본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파라미타 주관의 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한국청소년들이 일본을 방문해 아시아불교도협회 주관의 문화체험에 참여한다.

이날 대표단 상견례에서 한국측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한국 일본 청소년 불자가 먼저 많은 교류를 하고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청소년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자"고 말했다.

일본측 아시아불교도협회 이사장 오야코카이 스님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아 왔다"며 감사를 표시하고 "청소년들이 희망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박원식 회장 등 임명 한마음선원 신도회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의 새 임원진이 주지 혜원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은 4월 1일 열린 정기법회에서 신도 회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신도회 회장 겸 법형제회 회장에 박원식(사진) 대웅엔지니어링 대표가 임명됐으며, 신도회 수석부회장에는 김경수씨가, 부회장에는 김기상 · 류선호씨가 각각 임명됐다. 또 감사에는 염흥수 · 장형심씨가 임명돼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신도회와 법형제회 각 부장 등 26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혜원 스님은 "화합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도회와 법형제회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스님, 상담전문가 되세요"

중앙승가대에 불교상담대학 교육장 문 열어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을 불교전문 상담가로 양성하기 위한 불교상담대학 교육장이 4월 7일 승가대 김포학사 내에 문을 열었다.

불교상담대학은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산하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지난 3월 개원해 현재 서울 교육장에서 1기 4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중앙승가대 내에 별도의 교육장을 개설하게 된 것은 학인스님들의 불교상담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 덕분이다.

불교상담개발원 홍재우 대외협력팀장은 "불교상담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00여명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며 "불교상담 분야에 스님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자는 뜻에서 승가대 내에 교육장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기 입학생 90여 명은 앞으로 2년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마친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서만 2년 과정의 교육을 1년에 집중 운영한다.

불교상담대학은 앞으로 지역 불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에 교육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4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7-737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월 5일 조계사로 모여라"

부처님그리기 · 전래놀이 · 공연 등 푸짐

올해 어린이날 조계사 주변은 어린이 세상이 될 것 같다. '부처님그림그리기' '전래놀이 한마당' '즐거운 공연마당' 등이 펼쳐지는 '불기 2551년 어린이날 부처님 나라, 어린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제13회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는 목아박물관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선재마을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하는 전래놀이 한마당은 오전 11시부터. 페이스페이팅, 만들기도 할 수 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조계사 주관으로 장기자랑과 초대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

특급 정보 하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솜사탕, 슬러시, 과자, 떡 등 간식거리도 무한 제공된다. 남동우 기자

'구원과 해탈' 의미는?

불교 · 기독교 교수 세미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과 해탈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중표)와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종오)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기독교-불교 교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구원과 해탈'. 각 종교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구원과 해탈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보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조명해 본다.

김중표 회장은 "종교인들은 자칫 자신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웃 종교의 구원관이 무엇이고 서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의 해탈'은 이민용 교수(동국대)가, '기독교의 구원'은 이찬수 교수(성공회대)가, '불교의 해탈의 사회적 의미'는 최종석 교수(금강대)가, '기독교의 사회구원'은 이명권 코리아아쉬람 대표가 각각 발제한다. (02)720-6618 여수령 기자

천년의 氣 받으며 흙길 달려봐요

경주남산마라톤대회 5월 13일

"천년의 기를 받으며 흙길을 달린다."

최초의 불교마라톤대회인 경주남산산길마라톤대회가 네 번째 열린다.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준비위원장 한명로 · 국세청 불자회 회장)은 경주시, 불국사와 공동으로 5월 13일 오전 9시 경주 남산 통일전에서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마라톤대회, 친환경마라톤대회를 표방하는 경주남산산길마라톤대회에는 대회 때마다 3000여명 이상 참가한다.

대회종목은 하프코스, 10km코스, 10km걷기선(禪)코스 3가지. 남녀 하프와 10km 각각 1~5위까지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최고령 참가상, 최다 참가 동호회상, 최다 참가 자원봉사단체상도 있다.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www.buddhamarathon.com)를 통해 참가자를 접수한다. 참가비는 3만원.

한명로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 준비위원장은 "내년 부처님오신날 즈음 조계사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마라톤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불교스포츠문화원은 스포츠를 통한 포교를 목적으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한명로 준비위원장은 108명으로 전국불자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한 뒤 그 산하에 두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정식 출범은 올 하반기로 잡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관련 사업을 개발해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규제완화 연속토론회 연다

국가 불교정책 전반을 재조명하고 불교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연속토론회가 진행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발제는 김봉석 변호사(조계종 법무전문위원)가 맡고 진화 스님(서울 봉은사 총무국장), 조문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김장실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염형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동우 기자

석가탑 유물조사단 구성

불교계 반환이냐 국립중앙박물관 보관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을 두고 유물의 보존 상태와 시설 등을 점검하는 조사단이 구성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4월 5일 국보지정분과 · 동산문화재분과 합동분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석가탑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오희 문화재위원(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을 비롯한 전문가 7인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유물의 보관 상태와, 반환을 요청한 조계종 산하 불교중앙박물관의 보존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bomyungsa.org

미래를 여는 선지식 도량 성거산 보명사

53 선지식 초청대법회

천안 보명사에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우리시대 최고 선지식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이 천안 성거산 보명사에서 펼쳐집니다. 이 53선지식초청대법회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 되는 법석입니다. 화엄불국토 실현의 등불이 되고자 2년 여 간 진행되는 53선지식 구법대장정에 동참하시어 참다운 삶의 진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 · 재 · 대 · 법 · 회
초청선지식_지관 대종사(조계종 총무원장)
일 시_4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

법 회 일 정

날 짜	초 청 선 지 식
5월 6일	조용헌 (조선일보 컬럼리스트, 동양학자)
5월 20일	한승원 (소설가, 소설 『원효』 저자)
6월 3일	우승택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출연)
6월 17일	박재광 (5개국어 도사)

보명사 오시는 길
천안역,
천안고속터미널,
직산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부산 지역 오전 6시 30분 구덕운동장 뒷편 출발

장소_천안 성거산 보명사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2리 117-1) 문의_(041) 522-3362~4 홈페이지_www.bomyungsa.org

"한·중 불교 역사 키워드는 상호교류"

한중불교 교류세미나서 석길암 연구원 밝혀



3월 30일 중국 북경대학에서 열린 '한중불교교류세미나' 에서 정병조 원장(맨 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세기에 불교가 이 땅에 처음 전래된 후 새로운 불교를 익히기 위한 구법승(求法僧)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중국과 인도로 이어졌다. 신라 원광(圓光) 자장(慈藏) 스님을 시작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여 명에 이르는 스님이 중국에 유학하며 불법을 익히고, 국내에 돌아와 법을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불교교류 관계를 논할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는 일방적인 흐름만을 주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불교연구원 석길암 전임연구원은 "고려시대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로 역수입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열린 '한중 불교교류 학술세미나'에서 '고려시대 해동불교 전집의 중국 유통에 대하여'를 발표한 석 연구원은 "한중 불교교류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교류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석 연구원은 "한국불교가 중국에서 성립된 한문 불교전적(典籍)의 바탕 위에 전개됐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동일한 한문(漢文)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로 역수입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가 중국에 역수입 되기도" 주장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등 사례 제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이장의> 등의 저서는 늦어도 690년대에 중국에 전해졌으며, 오월왕이 고려에 천태종 장소(章疏)를 구한 일 등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송대(宋代)에는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과 균여 스님의 <보현십종원주가>가 전해졌다. 이어 대각국사 의천은 항주 혜인원에 <화엄경> 50권과 <당측천시역> 80권 <덕종조역> 40권 등을 기증했다. 원대(元代)에 들어서도 고려의 대장경이 중국에 수출됐으며, 많은 사경승(寫經僧)들이 원에 진출해 대장경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석 연구원은 "한중 불교교류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학불교 전적들이 중국으로 역수출되는 교류현상도 볼 수 있다"며 "한중간의 문화교류를 다각적은 측면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국시대(民國時代) 불교 간행물에 게재된 한국불교사료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황심천 교수(북경사회과학원)는 한중불교를 연결시킨 옥혜관(玉慧觀)이란 인물에 주목했다. 옥혜관은 조선에서 태어난 중국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선에서 자라 태허(太虛)대사에 귀의해 중한불교 교류에 진력했다. 중국 상해에 거주하며 중국불교회에서 활동했으며, 회보 <해조음(海潮音)>의 사장을 맡아 한국불교계의 소식을 중국에 전한 것은 물론 고려 의천 스님이 항주에 설립한 고려사의 중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국불교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황 교수는 "옥혜관이 살해당한 후 중국불교 간행물에서 더 이상 한국불교에 관한 소식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한중불교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옥혜관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과 중국 북경대학교 종교연구소(소장 루유열)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병조 원장의 '백운 경한과 임제종', 정병삼 교수의 '신라 구법승의 구법과 전도' 등 국내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위상해 교수(북경대 철학과)의 '중한불교교류에서 의천의 공헌' 등 총 14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관련기사 6면

중국 베이징=여수령 기자

●한중불교교류 프로젝트란?

불교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 답사 통해 살피는데 의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이 중국 북경대학교 종교연구소(소장 류우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중 불교교류 연구'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기 위해 떠났던 구법승들의 자취를 찾고, 그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과 치열한 구도정신을 되새김으로써 한국불교의 원류를 추적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단순한 문헌학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구법승들의 활동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가 불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중 불교교류 연구' 프로젝트는 오는 8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발표된 논문과 자료를 묶은 책으로 펴내고, 8차에 걸친 현장답사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구법승들의 경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구법 지도'도 작성할 계획이다.

현대인 마음 불교로 치료해요

명상치료학회, 불교심리학회 잇달아 창립

늘 불안과 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학술단체 두 곳이 잇달아 발족한다. 한국명상치료학회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4월 14일과 28일 각각 창립한다.

한국명상치료학회는 그간 명상상담연구원을 이끌어 온 인경 스님을 비롯해 우제선(동국대 불교학과) 임승택(경북대 철학과) 한자경(이화여대 철학과) 등 불교 명상과 심리치료를 접목해 연구해 온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명상치료학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창립 법회와 창립학술발표회를 연다. '붓다의 가르침: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진행될 학술발표회에는 안양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사고의 역기능과 그 해결-부처님의 가르침과 아론벡의 인지치료를 중심으로'를, 김말환 교수(동국대 불교상담)가 '염지관 명상의 심리치료 사례연구-군부대 우울증 환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02)2236-5306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불교에 기반을 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의 개발과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의 수행법과 심리치료를 접목해 연구해 온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과 전현수 박사(정신과 정문의),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를 비롯해 정신치료학계, 심리학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창립학술대회에서는 김재성 교수가 '불교와 심리치료의 접목'을, 윤호균 교수(가톨릭대 심리학과)가 '온마음 상담'을, 전현수 박사는 '불교적 접근을 통해 치료한 환자사례 발표'를 통해 불교와 심리치료의 만남을 시도한다. (02)890-2832

여수령 기자

동국포럼, 고려불화 국제학술대회

혜담 스님 작품 70여점 전시도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포럼(이사장 정재철)은 4월 18~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려화불 특별전시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빼앗긴 민족문화 유산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3시 30분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내외 고려불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이어진다. 학술대회에는 허흥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비드 램버스 교수(하버드대), 이인자 前 경기대 교수,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 등이 참석한다.

30여 년 간 고려불화 복원작업에 매진해 온 혜담 스님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는 '고려불화 특별초대전'은 세종홀에서 24일까지 계속된다.(02)2266-7308

여수령 기자

문화재청 범종 기록보고서 발간
왕흥사지 8차 발굴조사도 착수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2006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1차 조사 결과로 범종 16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범종(梵鐘)-형·색·감>(사진)을 출간했다. 문화재청은 "<범종>은 범종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기록한 종합적인 기록 보고서"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백제 사찰 가운데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에 대한 8차 발굴조사를 3월 28일 시작했다. 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약탈문화재 환수 남·북 한목소리

일본에 대한 반환운동 공동 대처키로 합의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철안·김원웅)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 정서정)은 3월 23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이 강탈해간 문화재 환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가 체결한 공동합의서에는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71종과 개성 화장사에 있던 '패엽경' 반환운동을 함께 추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남측은 일본 도쿄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북측 출토 유물에 대한 자료를 북측에 전달해 반환 추진에 힘을 보탠다.

환수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남측의 청구권이 일단 소멸됐다고 보았고, 북측은 아직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생태이므로 남북이 힘을 합치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불련은 지난해 3월 환수위원회측에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양측은 지난 2월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만나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령 기자

천안 보명사 '53 선지식 초청법회'
전문가들의 진솔한 삶이야기

천안 보명사(주지 성문)가 4월 15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53 선지식 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각 분야의 선지식 53명을 찾아 구법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이 시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그들의 지혜와 경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다.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입재법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문한다. 5월 6일에는 조용헌 조선일보 컬럼니스트, 20일에는 소설가 한승원씨, 6월 3일에는 우승택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보명사 주지 성문 스님은 "선재동자가 보살이 되기까지 간절한 원력을 바탕으로 4가지 항목을 실천지침으로 선정해 '선지식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41)522-3362

남동우 기자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지난 2003년, 대법원(2003다64381)의 "종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종정이 없는 종단으로 되었으나, 2005년12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비합.278)의 판결에 의하여 김대관(벽송)스님이 임시종정으로 선임 받았습니다.

1. 본 종단은 종헌, 종법에 따라 조속히 종회를 구성하여 종단의 안정과 재건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불미스럽게도 2006년 4월4일 구성된 종회가 종헌, 종법에 위배되는 불법 선출 등으로 참담하고 해괴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임시종정의 권한으로 종회구성을 무효로 선포하여 이미 공포한 종령 2005-1 종령 2005-2를 보안하여 종령 2006-1 종령 2006-2 종령 2006-3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 9월29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새로운 종회를 구성하여 종단이 재건되던 중, 돌연 2006년 11월30일 임시종정 김대관(벽송)스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년12월4일 중앙종회에 참석하시어 10명의 종정추대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김대관(벽송)임시종정스님이 2007년 2월1일 임시중앙종회 소집을 하시기에 사임의 뜻을 유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2007년 2월1일 김윤철(향운)측 종정으로 취임한다하니, 2007년 2월1일 소집된 임시중앙종회에서 김대관(벽송)임시종정의 사임서를 만장일치로 수리하였고, 따라서 2007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회에서(2007년 2월1일) 종헌, 종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우종산(청은)스님이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종도(승려)들은 종단분규를 조장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의 감언에 현혹되어 본의 아닌 해종행위를 하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종단 재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8월8일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당시 임시종정 김대관(벽송)스님의 선계문에 의하여 2006년 4월4일 선출한 종단임원 선출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종령 2005-1,2 종령 2006-1,2,3에 의하여 총무원장 서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지방교구장등의 임명도 무효임을 선언한 바 2006년 9월29일 이전에 임명된 모든 임원의 자격은 무효임으로 새로운 승적 및 임명장을 발급받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종부(승적부)에 입적되어 있는 종도(승려)들도 승려증 발행자의 대표권이 상실되었으므로 2007년 5월31일까지 사암등록신청과 승려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우종산(청은)스님의 승인이 없는 대.내외적인 공식 집회의 참석과 종회 집행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의 대한불교원효종의 명칭 및 직함을 도용하는 것과 본 종단 명의의 게시물을 대.내외에 게시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대한불교원효종의 종헌, 종법으로 엄중 문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임.

5. 지난 2007년 3월30일 개최한 "2007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해종행위에 대한, 제적자 3명의 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포합니다.

아 래

- **하영기(상운)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999**
- **오양근(명수)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708**
- **윤광진(원광)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1리 443**

상기자들은 종헌 제98조, 종법(상벌위원회법) 제4장에 의거하여 제적처리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301호 TEL 02)735-0503 / FAX 02)735-0506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30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우종산(청은)

전 종도에게 드립니다

2003년 3월 10일 이법홍 전 종정예하께서 원적하시면서 일부 몰지각한 문도들이 야합하여 종권쟁탈의 시비가 야기된 것이 법란이 되어 법적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적 시비를 일으킬 수 없는 자들이 소송제기를 하였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니,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으로써 소위, 부산 측 대한불교원효종은 자멸이 되었고 서울 측 원효종은 개정 종헌, 종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남으로써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정이 없는 종단이 되어버렸음으로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대관(벽송)스님을 임시종정으로 신청하였던 바 2005년 12월 14일 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대관(벽송)을 임시 종정으로 선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본종에서 위촉, 임명 또는 선임된 임원, 의원 등 모든 임원의 직책은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음으로 임시종정의 권한으로 종단 재구성을 하게 되어 종헌, 종법(구 종헌, 종법)에 따라 종회의원을 선출하여 2006년 4월 4일 새로 구성된 제1차 종회를 개회하고 김윤철(향운)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우청운 스님을 종회의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구성된 종회가 여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음으로 그 종회가 무효임을 종정 선계문을 통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철(향운)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을 재조직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전 종도들을 현혹시키고 불교계에 본의 아닌 누를 끼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06년 11월 30일 전 임시종정 벽송스님이 임시종정을 사임하고 김윤철(향운)스님 측으로 자리를 옮겨감으로써 동년 2월1일 긴급히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하여 노납을 제14대 원효종 종정으로 추대하여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종도 여러분!

세간법에 앞선 불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대 원력을 세우고 득도 출가한 우리들이 어쩌다 세간법에 끄달여 본의 아니게 타에 누를 끼치는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이제라도 우리는 삼보와 종조 앞에 크게 참회하고 출가의 본분을 다하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 종단 재건불사에 정진해 주실 것을 합장하는 바입니다.

마을 전체가 커다란 절집

불교문화콜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⑧ 경주 남산


남산마을에 있는 삼층석탑.


보리사 대웅전


남산의 소나무

"남산은 신라 때 꼴짝꼴짝이 전부 절이라요"
현재 옥련암 보리사 등 여덟 개 사찰만 남아
골목 나서면 돌탑이 있고…"기독교가 안 돼요"

큰 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 남산은 산 자체가 커다란 불국정토다. 일설에 의하면 팔만 구 암자가 있었다고 하니, 현재 남아있는 어떤 절 보다도 규모가 큰 절이 있었다는 얘기다.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의 안산인 남산. 이렇다할 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골짝 골짝에 남아있는 수많은 불상들이 옛날의 흥성을 짐작하게 해 준다. 현재도 남산을 빙 둘러 여러 채의 절이 들어서 있지만, 대개 최근에 생긴 절들이다.

갯마을에 이른다.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다. 겨우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 길을 묻는다. "바깥에들한테 물어 봐야지요." 이 지역에서는 결혼한 남자들을 일컬어 '바깥에'라고 한다. 석불좌상이 있는 보리사에 가 보아도 인적은 없다. 갯마을이라는 지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작은 시내가 마을 앞을 지나고 있다.

남산 마을로 향한다. 헌강왕릉, 정강왕릉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인다. 경주는 가는 곳마다 왕릉이 있고, 유적지가 있다. 남산에 있는 왕릉만도 다섯 기가 넘는다. 태종무열왕릉비를 중심으로 조성된 통일전은 규모가 크다. 통일전 옆에는 서출지가 있고, 서출지가 있는 마을이 바로 남산마을이다.

"남산은 신라 때 꼴짝꼴짝이 전부 다 절이라요. 팔만 구 암자라고 한다는등만요. 현재 남아있는 절이 칠불암입니다. 지금은 암자지만 불상이 아주 좋습니다."

임홍순(85 · 남산마을)옹의 말이다.

"칠불암에서 이래 보면 신선암이 보입니다."

칠불암에서 보면 신선암도 보이고, 옥룡암도 보인다. 옥룡암의 옛 이름이 '불박사'라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산을 오르내렸지만, 남산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를 몰랐다. 나무하러 다니며 불상들과 빈번히 마주쳤지만, 남산에 불상이 많은 것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마을은 남산 마을 한 마을입니다. 지역에 따라 새남산, 안말, 탑말, 남쪽, 갯마을, 이렇게 하지요. 갯마을이란 데는 신라 때 개뻘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임광혁(80 · 경주 남산마을)옹은 마치 신라 때 배가 들어온 것을 본 것처럼 말했다. 임광혁옹은 남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갖가지 설화는 물론이요, 직접 발굴지를 따라 다니며 본 것들까지, 세세히 이야기를 하였다.

"서출지라는 데 아요?" 임옹이 난데없이 물었다.

"신라 21대 소지왕 때 반월성이 궁터임다. 안압지는 동궁팁니다. 거 이제 인정전이라 하더라고 거 소지왕 때 그때는 아주 태평성대라. 그런데 까막까치가 와서 우는기라."

소지왕이 인정전 앞을 지나고 있는데, 까막까치가 와서 울었다는 것이다.

"까막까치가 와서 우는 거여. 그래 이상해서 까막까치를 따라 가는데, 가니까 돼지가 싸움을 하고 있거든. 근데 싸움 구경하는데 까막까치는 간 데 없어. 그때 흰옷 입은 노인이 냐타나 봉투 하나 주는 거여. 개봉시 일인사요 미개봉 일인사라, 궁에 들어가 사정갑하라. 철괴를 쏴라 이 말이여. 그래 거실에서 철괴를 향해 활을 쏘았는데, 거기 왕비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여. 지금 간판 있는 거는 고쳤고, 이게 전설 그대로여."

임광혁옹은 전설의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게 많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바꾸어 적었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 안에는 여덟 개의 절이 있다. 옥련암, 보리사, 칠불암은 오래 되었고, 근래에 여러 채의 절이 생겼다. 절이 수시로 생겨나고, 규모도 천차만별이기에 마을 사람 내에서도 어디까지를 절로 쳐야 할지 이견이 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임광혁옹이 비밀을 털어 놓듯이, "탑 다섯 기를 새로 세웠어. 그건 모를끼라" 하였다. 남산(금오산)에 있는 탑 다섯 기를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새로 쌓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불자라는 남산마을.

"이 마을은 이상해요. 기독교가 안 돼요. 딱 한 집인가 있어요. 이사온 사람인데 안씨네라고, 딱 한 집 있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도 이사 들어온 사람이라는 설명이다.

"일본놈 시대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어요. 근디 딴디서 일로 오지 남산 사람은 안 다닌기라. 동네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 뜯어서 동방으로 갔심더. 그래, 이리 큰 동네에 교회가 없나, 이상해요."

임옹의 말허리를 자르고 다른 사람이 끼어 들었다.

"절은 쪼깐 절이거나, 땡땡이절이거나, 사이비절이거나 묵고 살만 하니끼리, 자꾸 생기고, 교회는 안 되니끼리, 나가고 글치."

남산에서는 어느 절이건 이름만 붙여 놓으면 사세가 확장되었다.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이 새로 생긴 절을 찾는 것도 아니다. 대개의 절은 외지에서 오는 신자들에 의해 유지된다. 마을의 가구 수가 200호가 넘지만, 모든 집들이 남산 자락에 도란도란 붙어있다. 골목길을 나서면 돌탑이 있고, 석탑이 서 있다. 가만 보니,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절집으로 보인다. 성과 속의 구분이 없다.

경주 남산=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경주 남산의 시인 정일근씨
남산 300번 이상 올라 "이상스럽게 좋은기라"



남산에 미친 시인이 있다. 그가 남산에 오른 횟수는 300번 이상이 되고, 야간 산행만도 100회가 넘는다. 오죽이나 산이 좋았으면, 등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늑대산악회'라는 산악회를 결성하여, 한 밤중에 늑대떼처럼 남산을 오르내렸을까. 남산에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정일근(49 · 사진) 시인.

경주 남산에 대한 정 시인의 사랑은 몇 년 전 한권의 빼어난 서정 시집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고, 이후로도 시인의 경주 남산 연작시는 계속되고 있다. '경주 남산'을 부재로 단 시만도 40여 편이고, 남산이 소재로 쓰인 시를 모두 합치면 몇 십 편이 더해진다.

"40을 앞두고 내가 이래 떨어질지 알았던 모양이지."

남산을 들고나며 마흔을 앞둔 해에 그는 생사가 오고가는 뇌수술을 두 차례나 받게 된다.

이후 그는 경주 남산에 더 빠지게 되고, 그의 작품은 '서정시의 정수'라는 평가가 곁들여지며, 그는 '소월시 문학상'을 비롯하여, 유수의 문학상을 연이어 수상하게 된다.

"허락하신다면, 사랑이여 // 그대 곁에 첨성대로 서고 싶네, / 입 없고 귀 없는 화강암 첨성대로 서서 / 아스라한 하늘 먼 별의 일까지 목측으로 환히 살폈던 / 신라 사람의 형형한 눈빛 하나만 살아, / 하루 스물 네 시간을, 일 년 삼백 예순 닷새를 / 그대만 바라보고 싶네…."

아프고 난 후, 마음은 더 평온해져 얼굴이 마치 남산에 있는 불상처럼 푸근해진 정일근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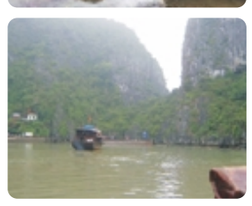
"남산이 이상스럽게 좋은기라. 무작정 좋아."

남산을 보면 그의 시가 떠오르니, 경주 남산의 시인 정일근이 아니라, 시인 정일근의 경주 남산이다.



"틱낫한스님 친견 및
마가스님 명상수행 순례"
-베트남수도 하노이에서...

◈기 간 : 2007년 5월 2일 ~ 5월 6일
◈주요일정 : 인천 – 하노이 – 베트남북부(하롱베이) – 틱낫한스님 친견 – 인천
◈출발인원 : 60명(선착순마감)
◈동 참 금 : 890,000 / 1인
◈예약방법 : 계약금 및 여권복사본 (잔여기간6개월 필히요)을 보내주시면 예약됩니다.
※계약금 ₩200,000
◈계 좌 : 농협 053-02-171800 (예금주 : 구광국아제여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명진출판사에서 틱낫한 스님의 책〈기도〉를증정합니다."

www.ajet●ur.c●.kr

since 1999
문의 : 불교성지순례전문 아제여행사 TEL : 02)730-4008(代) FAX : 02)725-5006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1403호(우:110-170)

아제여행사 출발확정

▶티벳하늘열차 8일
5월28일,6월19일,6월23일 1,790,000

▶초조달마에서육조혜능
선사 선적지 8일
6월5일,9월1일, ₩1,490,000

▶구화산,황산5일
5월26일 ₩799,000

▶대만 불광사,자재정사순례5일
5월26일 ₩890,000

▶불탑의 나라 미얀마 7일
5월 26일 ₩1,590,000

▶보타산/천태산/상해5일
5월28일 ₩840,000

▶동유럽 7개국12일
6월1일 ₩3,050,000

급모객(현재 8분)
▶시베리아행단열차 12일
4월23일 ₩3,090,000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5월26일 ₩1,990,000

일주문



법왕사 창건 12주년 법회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4월 22일 오전 11시 포천 법왕사 창건 12주년 기념 초청 대법회에서 <신신명>을 강의한다. (031)532-4886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4월 29일 보제루에서 제107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입재한다. 수계산림은 5월 1일 회향한다.(051)508-3122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재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28일 김포 중앙승가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제14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재 선출됐다.



수험생 장학금 지원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4월 3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부산대 수험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항일독립지사 추모대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구룡사에서 제3회 항일승병장 무총대선사 · 원주 항일독립애국지사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평화콘서트 개최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4월 29일 한 · 일간 평화와 우정을 염원하는 제2회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02)722-2101



회당학회장에 선출

보원심인당 주교 효운 정사는 3월 3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당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시우 박사 초청 강연

이시우 전 서울대 교수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삼성뮤지엄아카데미에서 '우주의 섭리'를 주제로 강의한다.(02)394-6544



예비 포교사 연수

조계종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4월 15일 지역별 예비 포교사를 대상으로 제12회 포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02)927-7588



차 예절 체험행사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은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창경궁 영춘헌에서 차 예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02)762-9515

"중국 젊은 학자들 불교 연구 · 신행 활발"

북경대 종교문화연구소 루우열 소장



"중국 내 개방 바람을 타고 최근 10여 년 사이 중국 불교계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북경대에서 만난 북경대 종교연구소 루우열(73, 樓宇烈 · 사진) 소장. 중국 선종사를 전공한 루 소장은 "중국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불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 연구와 신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루 소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는 사찰 복원 및 건립과 승려 교육기관인 불학원(佛學院) 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각 사찰에서는 회보와 사보를 펴내고, 중국 각 성마다 있는 불교협회에서도 불교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불교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대학마다 불교학과를 개설하고 한 해 300여 명에 달하는 불교학 전공 석 ·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매년 1000여 편 가까이 쏟아지는 불교 관련 논문들은 사상사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 비교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매년 20여 차례의 불교학회가 열리는 등 그야말로 '불교학 중흥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절강성과 복건성 등 동남 연안의 지역의 불교가 급속히 성장해 내지 불교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학생들이 1주일 간 절에 머물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0여 개 사찰에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 회마다 사찰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여 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앞으로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에 있어 불교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자비사상에 입각해 교류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연구와 학자 · 스님들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루 교수는 '선불교는 전통적인 의미의 불교가 아닌 중국인들만의 사유체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불교의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불교는 중국에서 탄생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 근본정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루 교수는 "선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겉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그 중심사상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여수령 기자

불교복지선구자 묘희 스님 입적



경북 영양 울련산 연화사 묘희관 묘희 스님(사진)이 3월 31일 오후 1시에 입적했다. 세수 72세, 법랍 57세.

1980년대 말 누구보다 먼저 불교계 노인복지현장에 뛰어들었던 묘희 스님은 불심이 깊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연을 맺었다. 1951년 14세에 월해 스님을 은사로 윤필암에서 출가했다. 51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이듬해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4년 신림동 약수암 주지를 맡으면서 82년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학감, 85년 조계종 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89년 경기도 화성에 지금의 부지를 매입해 이듬해 한국불교 자제공덕회를 설립하고, 91년 사단법인 불교자제공덕회 묘희원 원장 겸 이사장을 맡아 사회복지에 앞장섰다.

일생을 포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하다가 말년에 건강을 잃은 스님은 <법화경>에 의지하며 참회기도에 매진했었다.

묘희 스님의 다비식은 4월 5일 연화사 법당 옆에서 열렸다.(054)683-5799 **김원우 기자**

"잘사는 충북 · 행복한 도민"

충북불교연합회 도정 발전기원법회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 법주사 주지)와 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는 4월 3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도정 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도지사와 무위 스님(용화사 주지)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공 스님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지자체 운동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 충북지사장**

이전 현대불교 대구지사 사무실이 대구 남구 대명9동 782-2 1층으로 이전했다. (053)768-8008

6군단 불이사 특별법회



6군단 호국불이사(주지 강대남 법사)는 4월 1일 법당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면 스님은 "군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부처님 법을 생각하며 정진한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불교아카데미 제1회 리더스 포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사)불교아카데미는 4월 3일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강의실에서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를 초청, 제1회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장 대표는 "4차원 경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시공간의 통일장으로 보는 경영"이라고 4차원 경영 대해 설명했다.

이웃돕기 일일찻집 개최



서울 자양동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3월 30일 자광(前 직지사 주지) 스님을 증명 법사로 '부처님 개금 회향 점안 법회'와 '어려운 이웃 및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바자회에서 모아진 수익금 500만원은 5월 19일 광진구 · 성동구지역 이웃돕기에 쓰여진다.

인천 황룡사, 새터민 템플스테이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4월 3일 이상안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조영균 새터민 정착지원사업단장과 여성 새터민 등 200여명이 참석이 참가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입제식를 개최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종교의 힘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진해 해장사 낙성법회



천태종 진해 해장사(주지 보경)는 4월 3일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진해사암연합회장 운성(대광사 주지) 스님 등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낙성식 및 삼존불상 · 조사스님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즉심성불'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역사문화유산과 환경 / 생태를 파괴하는 충남 가야산권 개발을 반대한다.

원시의 자연 속에서 천년의 미소가 살아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있는 충남 서북부 해안의 명산인 가야산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개발 논리 앞에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 천오백 년 불교의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는 가야산엔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등성이가 깊이 패여 고압 송전철탑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1백 미터 거리에 있는 앞산에 터널을 뚫고,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가야산 관통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소위 충청남도의 내포 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야산 개발에 의해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천오백 년 불교의 문화유산과 지역 사찰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내포문화권 개발의 원래 취지는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른바 내포문화권 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주민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야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철탑을 꽂고 '백제의 미소'에 눈물을 머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전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뜻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개발의 미명 아래 소중한 문화유산과 환경을 파괴하는 가야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아울러 가야산살리기시민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2천만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가야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라.

둘째, 충청남도는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야산 보존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전문가, 환경단체,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과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

넷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가야산 도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조속한 실무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불기2551(2007)년 3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업보 굴레 훨~훨 벗고 죽음 없는 곳으로…



서울대공원서 동물 위한 천도재 봉행

사고 · 병사 · 육식동물 먹이로 제공되기도

조계종중앙신도회 · 서울시의원불자회 공동주최



▲강릉 현덕사 현종 스님(오른쪽 세번째)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위패를 태우고 있다.

◀헌향하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덕문 스님(의왕 용문사 주지).

▼불광유치원생들이 앵무새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인간들 때문에 희생된 동물의 애혼(哀魂)들이 일체 고난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 길이 길이 행복해지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4월 5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총 349종 3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죽은 이의 넋을 달래고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의식인 '천도재(薦度齋)'가 열렸다.

남아메리카관 뒤 위령비 광장에서 열린 천도재의 천도의식 대상은 서울대공원에서 인간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자유를 빼앗긴 채 동물원에 갇혀 지내다 희생된 동물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제7대 서울시의원불자회(회장 이종필) 주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식물 천도재를 매년 열고 있는 현종 스님(강릉 현덕사)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스님은 "동물들이 있기에 우리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존귀하다는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도재가 열린 후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동물들의 원혼을 달래는 헌화와 분향을 했다.

2004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에서 죽은 사육 동물 516마리 중 수명이 다해 자연사한 경우는 전체 6%인 31마리에 불과했다. 육식동물의 먹이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불의의 사고사와 병사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날 천도재는 죽어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도는 동물들의 영혼을 천도해주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천도식에서 의왕 용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일체 모든 영혼이 천도되길 기원한다"며 "모든 동물들이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법문했다.

조계종 신도회 손안식 부회장은 김의정 회장의 봉행사 대독을 통해 "천도재를 계기로 비운으로 생을 마감한 동물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들이 지은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유정과 무정들이 다같이 행복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반야월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 수석부총재가 천도고유문을 낭독하자, 위패를 태우고 동물원을 돌며 동물영혼의 왕생을 기원했다.

특히 120여명의 서울 불광사 불광유치원생들은 서울대공원에서 행사장에 마련해준 대표적인 희생동물들에 대한 설명을 사육사에게 듣고, 임시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2006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동물들의 관리와 관련해 정책질의를 한바 있는 부두완 서울시의원은 "서울대공원 동물들의 대부분은 제 수명을 못 누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천도재를 계기로 사회에 만연하는 생명경시 풍조가 희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김원우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4> 뜨거운 철판을 몸에 두를지언정

<잡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탁발을 나갔다가 공양을 받지 못하여 빈 발우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어느 조그만 마을 주변에 있는 숲 속에 계실 때의 일이었다. 마을에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노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아침에도 부처님께서는 마을로 탁발을 하러 들어가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겨운 축제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 아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공양을 받지 못한 부처님께서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신통력이 있는 악마가 부자처럼 모습을 바꾸고 나타나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오늘 공양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이번에는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공양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으니
공부하는 기쁨을 음식 삼아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수행자의 삶이란 신도들의 시물에 연연하여 옷이나 밥을 잘 입고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깨달음의 큰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훤칠한 대장부의 삶이니 <선가귀감> 64장에서 말한다.

故曰 寧以熱鐵纏身 不受信心人衣 寧以洋銅灌口 不受信心人食 寧以鐵鑱投身 不受信心人房舍等.

그러므로 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철판으로 몸에 두를지언정 신도들의 옷을 받아 입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녹인 구리물을 입에 쏟아 부을지언정 신심 있는 이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펄펄 끓는 가마 속으로 뛰어들지언정 믿음 깊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집이나 거처를 받아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

시물(施物)에 대한 과보를 조심하도록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내리신 <중아함목적유경(中阿含木積喩經)>을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비구들이여! 시뻘겋게 달군 철판이나 쇳덩어리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일은 죽거나 죽을 뻔 하는 고통을 받을 뿐 그 과보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법을 파계한 수행자가 욕심 때문에 부잣집이나 명문대가의 예배와 공경 공양을 받는 일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거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인과를 알고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니니, 반드시 그 과보로 커다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온갖 시물(施物)이 다 커다란 빚이 될 것이니 축생의 몸으로 되갚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서 인과법(因果法)이니라."

부처님 가르침 오염시켰다면 가벼운 것도 罪
좋은 옷 입어도 깨달음 얻지 못하면 허망할 뿐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 자리에 있던 60여명의 비구가 그 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생활을 크게 뉘우치고 환속하여 세속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서산스님은 말한다.

梵網經云 不以破戒之身 受信心人 種種供養 及種種施物 菩薩 若不發是願 則得輕垢罪.

<범망경>에서 말하기를 "파계한 몸으로 신도들의 온갖 공양과 시물을 받지 않아야 하니, 보살이 이 원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구죄(輕垢罪)를 얻느니라."고 하였다.

경구죄는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하면 지었던 죄를 면죄 받을 수 있는 가벼운 죄를 말한다. 보살계에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라는 열 가지 중요한 계와 마흔여덟 가벼운 계가 있다. 열 가지 중요한 계를 범했을 때는 부처님 교단에서 쫓겨 날 수도 있는 무겁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바라이죄(波羅夷罪)가 성립하고, 가벼운 계를 범했을 때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참회를 하고 대중들이 이의 없이 그 참회를 받아들이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경구죄를 얻는다고 한다. 그 죄가 가볍더라도[輕]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행을 오염시켰으므로[垢] 죄가 된다는 것이다[罪].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하였다.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게 받기 어려운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는데, 수행자가 도리어 파계하고 사람의 몸을 잃게 된다면 그 과보가 어떠하겠는가? 다시는 불법을 만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참으로 애달픈 일이 되지 않겠는가?

삼악도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동안 온갖 고통을 받아도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는 중생들은 재물과 세속의 삶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지 말라고 막는 이들이 없어도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적은 까닭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세속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신의 중생들이 보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원치 않는 삼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이 몸뚱이와 오욕(五欲)의 즐거움을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의 보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뒷날 허망하게 흩어질 이 몸뚱이란 수행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법이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여도 지수화풍의 인연이 흩어지면 홀연히 사라질 이 목숨이란 그렇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라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무차대회(無遮大會)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복지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무차대법회를 3월 23일 봉행했다.

무차(無遮)는 매우 관대하여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불교용어이다. 그래서 무차대회에서는 스님 · 재가 · 남녀노소 · 귀천 · 상하의 구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법문을 듣고 토론하며, 잔치를 열어 물건을 베푼다.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로 무차회라 하기도 한다.

무차회의 기원은 인도 아쇼카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쇼카왕(재위 BC 268~232)이 선지식을 모시고 차별 없이 재물과 법을 보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 무차대회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때 '무차회'를 열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사>에는 940년(태조 23)의 신흥사 공신당(功臣堂)을 신축할 때 무차대회가 있었고, 1165년(의종 19)의 궁중 무차대회, 1216년(고종 3) 미륵사 공신전 중수 후 무차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

근 · 현대 우리나라의 무차법회는 1896년 스님들의 도성출입제한 해제를 기념하여 한국과 일본 스님들이 공동으로 경성에서 수일간 열었으며, 이후 전국의 사찰에서 무차선회가 개최됐다. 1912년 방한암 스님이 금강산 건봉사에서 무차선회회를 가진 이후 맥이 끊겼다가 1998년 장성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의 원력에 의해 바른 법을 세우기 위한 대화의 장이 복원됐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6>



내담자의 특징

심리 상담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와 도와주는 상담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담자와 상담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면 관계다. 이 가운데 내담자 요소를 살펴본다.

상담심리학에서 내담자를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참조한다.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시간의 경과, 문제 발생 원인의 소재,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시간적 요인을 살필 때는 그 문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또는 일시적이지만 재발할 수 있는지를 보며, 발생 원인의 소재에 따라 구분할 때는 문제의 원인이 성격적 문제 등 개인 내부에 있는지, 상황적 문제 등 외부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는 아무런 심리적 문제도 겪지 않는 정상적 상태인가, 신경증적 문제를 겪는 상태인가, 정신증적 문제를 겪는 상태인가를 면밀히 살핀다. 이러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자도 달라진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한 정신증적 상태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주로 입원 또는 약물 '치료'를 하며, 신경증적 상태 또는 정상 상태이나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 등으로 부적응 상태에 처한 사람은 상담가가 심리 상담을 한다. 또한 임상심리사가 있어 두 분야의 중간쯤에서 조금 더 심각한 신경증, 심리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 · 진단 및 심리치료를 한다.

이 세 분야 전문가들이 반드시 자기 영역에만 한정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의사가 좀 더 정상적이지만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도 하고, 상담심리사도 정신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여 상당한 치료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담자였을까? 부처님 당시에는 내담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즉 구도자나 부처님이 교화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을 현대 심리상담의 내담자라 가정하고 살펴본다.

부처님 당시의 내담자는 매우 다양했다.

부처님 당시 내담자는 생사 · 해탈 문제 등 상담
현대 치료 대상인 정신 · 신경증 차원과는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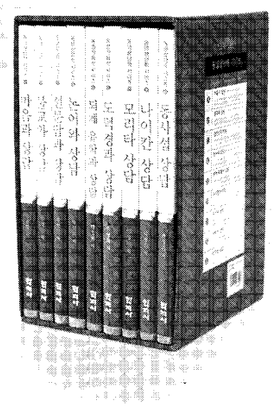
아주 어린 아이 노인, 거지, 거대한 부를 쌓은 장자, 천민, 국왕 또는 성직자, 바보, 지혜로운 현자, 귀신과 천인, 외도와 제자, 살인마와 도적, 남자와 여자 등 온갖 종류와 각계 계층의 사람이 망라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오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높은 경지라 할 수 있는 생사의 문제, 생사 해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대의 내담자들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교화 사례에서는 오늘날 심리치료의 주 대상인 정신증이나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발견하기 힘들다. 정상 상태이나 일시적으로 심리적 부적응 또는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간혹 만날 수 있을 정도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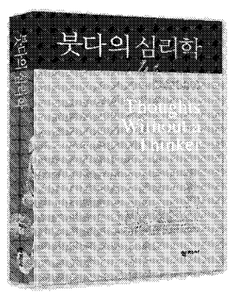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섭 상담

박성희 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 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저 | 전현수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당신의 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의학프로그램
치매예방과 뇌 장수법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504면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NLP의 새로운 접근
시간선 치료
설기문 저 | 신국판 | 248면

신념을 바꾸면 능력과 운명이 바뀐다
NLP 기본법칙을 통한
신념의 기적
로버트 딜즈 외 공저 | 전경숙 외 공역 | 신국판 | 328면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384/352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조옥경 외 공역 | 국배변형판 | 252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두뇌를 깨우는 140가지 비결
두뇌계발비결
리처드 레비톤 공저 | 김종석 역 | 신국판 | 528면

상담자의 책무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안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김창대 역 | 크라운판 | 352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자기를 바꿔라 좋은 쪽으로…”



진철 스님 (만불선원 회주)

불교의 궁극은 중생구제…방향 설정 제대로 하자
불교가 이시대 문화 주도하도록 포교 개념 바꿔야

선지식을 찾아서

먼 곳을 향해 있는 시선은 전체를 본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길이 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앞의 것에만 고정돼 있던 눈을 들어 더 먼 곳으로 눈길을 줄 때, 발 딛고 선 현재에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좌표가 비로소 생긴다.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상황일수록 그렇게 먼 곳에 시선을 두고 현재를 걸어가는 길잡이가 그리운 법이다. 충남도청에 인접해 있는 만불선원을 찾아가는 길, 스님은 초행길인 기자를 위해 도청까지 걸어 나와 길을 안내했다. 고생하지 않게 더 쉬운 길을 찾게 하려는 스님의 마음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더 쉽게, 더 분명하게 길을 열어 보이는 일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믿으며,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스님과 보낸 시간 속에서 나의 길을 멀리 응시해 보게 되었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만불선원 회주 진철 스님의 눈길은 늘 먼 곳을 향해 있다. 스님의 ‘멀리 보기’와 ‘전체 관망하기’는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명백하게 해준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삶의 철학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돼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목적은 중생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정은 큰스님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문을 하고 그것으로 법을 다 전했다고 하고, 또 그런 것에만 사람이 몰려드는 쏠림현상까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일반인들이 불교를 멀고 어렵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기여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구제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중생구제가 될 것인가 방향 설정을 하고 그것에 의한 법문도 하고, 불사도 포교도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 설정 없이는 우왕좌왕 할 뿐입니다. 아무리 교세가 확장되었다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스님은 오래전부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찾기를 화두처럼 여겨왔다. 사회의 이런 저런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오면서 스님은 불교의 위상이 아직도 ‘깜깜절벽’이라는 걸 절감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스님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해봐야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또 현재 불교를 인식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와 고민, 관심이 부족해요. 불교가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입니다. 지난 20세기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독교 문화 일색으로 흘려보냈으니 이제 21세기는 불교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1세기의 대안을 불교라고 하면서도 그런 연구와 고민은 아직 걸음마도 못 떼고 있어요. 그러니 사회 속에서 불교의 메아리가 없는 공염불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최근 스님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창립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문화유산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임에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키워놓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절감했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현장에 나가보면 곧바로 와 닿는다. 실핏줄조차 없이 대동맥, 대정맥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책 연구나 승려교육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대전 도심에 포교원을 연지 1년 6개월 남짓. “도심에 포교원을 열고 신도를 교육시키고 포교하는 것은 불교가 해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의 말에서 스님의 포교관을 짐작할 수 있다. 수행으로 스스로의 깨우침을 이끌어주고 그 바탕위에 대사회적인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의 포교 원력은 도심포교당인 만불선원을 열기 훨씬 이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다. 앞선 스님의 생각은 처음엔 생소하게 보여 거부당하기도 하고, 시작은 되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스님의 생각들이 하나 둘 현실 속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숙세의 인연이 있었던지 불교가 너무 좋아 출가의 길을 선택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 속에 펴는 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세수 서른 살도 안 되었던 1960년대 후반, 이미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시도했다.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결국 1150평 골조를 세우고 그 일은 중단됐다. 앞선 생각은 있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선 생각과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 스님의 앞선 생각과 시도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복지, 환경, 문화 분야의 첫 출발을 열어준 단체의 책임을 맡았던 직함들이 제법 포함돼 있다. 1983년 스님으로는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강릉자비복지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지냈는데 그 일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때는 매스컴이 온통 난리였어. 스님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게 뉴스가 되고 유명 잡지,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인터뷰를 하고 했으니 그만큼 불교나 스님이 사회적인 역할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되겠지. 아무튼 그때 스타가 됐지. 허허허.”

그 뿐 아니었다. 불교환경교육원 초대 이사장과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의 모태가 된 생명공양실천본부를 설립하고 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는 마곡사에 마곡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을 지낸 일이다. 1971년, 종합병원 건립에 실패하고 난 뒤 곧바로 스님은 8km를 걸어가야 중학교를 갈 수 있는 마곡사 인근 마을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학교 과정의 학교 개설을 추진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라 중학교를 못 가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땅을 매입하고 100평 규모의 건물에 교사 4칸을 지어 중학교 과정을 열어 13년간 운영했다. 그 과정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시험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 학교를 거쳐 간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연락해오기도 하고 출가한 이들도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인재들로 자라났다. 스님의 이 같은 노력을 지켜보던 정부에서 정식 중학교 과정을 개설하면서 마곡고등공민학교를 폐교했지만 스님의 앞선 생각은 배움의 길이 막힌 수많은 이들의 미래까지 열어 준 것이다.

세수 68세. 이제는 인생 회향을 준비 중이라는 스님에게서 불교의 기본을 배운다. 어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속에서 실현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일반인들과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게도 된다.

“불교는 결국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불은 곧 나를 바꾸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았다 하는 호된 훈련을 거쳐야 챔피언이 되듯이 나를 비워내고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육바라밀 실천 속에 불교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육바라밀의 가장 첫 덕목이 보시인 것은 보시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오려면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기 포기는 곧 자기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 이상의 공부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어렵고 수준 높은 것에 욕심내지 말고 기본을 챙겨가라”는 스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길, 오래 오래 곱씹어졌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진철 스님은 1964년 공주 마곡사에서 일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도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9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입산 이전부터 새벽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스님의 일과는 출가 후에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시작된다. 알람이 없어도 한 번도 실수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스님의 일과는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좌복 위에 앉아 있어야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법주사 등에서 안거를 이어왔으며 2001년부터 3년간 대전 두산서원 토굴에서 정진하기도 했다.
회향과 함께 다음 생을 준비하며 산다는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재가자를 위한 연수원을 세우고 싶다고 말한다. 대전에 터를 잡은 것도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연수교육원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발원하는 마음에서다. 승가는 재가에게 재가는 승가에게 서로 서로 스승이 돼야 목적지에 제대로 가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스님의 오랜 원력이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월 스님(1)

경허 스님, 그 한 물건을 일러라

혜월 스님, 신골 치는 '탁' 소리에 환해져

혜월 스님은 19세부터, 은사인 혜안 스님 부탁으로 서산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즈음, 스님은 경허 스님을 졸라서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배우게 된다.

이 <수심결> 서두에 임제 선사의 "지 · 수 · 화 · 풍의 네 가지 물질적 요소는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허공도 또한 그러하거니, 다만 네 눈앞에 항상 뚜렷하여 홀로 밝고 형상 없는 그것이라야 비로소 법을 말하고 법을 듣느니라" 라는 구절에 이르러, 혜월 스님은 큰 의문을 일으키게 된다. "목전에 뚜렷하고 형상 없이 홀로 밝은 것(歷歷孤明 物形段者),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화두가 자리잡은 것이다.



한 물건은 설명 불가능한 것
의심 끊어진 곳에서 깨닫게 돼

이때 경허 스님은 다시 "어느 물건이 설법하고 청법하느냐? 형상 없으되 뚜렷한 그 한 물건을 일러라."

답을 이르지 못한 혜월 스님은 이로부터 늘 '대체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꽉 차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직 이 한 생각 뿐이었다. 1주일이 되던 날, 스님은 짚신 한 켤레를 다 삼아놓고 마지막으로 신골(틀을 짚신에 넣고 두드려 모양새 고르는 것)을 치기 위해 '탁!' 하고 자신이 친 망치소리에 그렇게 찾던 '한 물건'이 환하게 드러났다.

혜월 스님이 타파한 '한 물건(一物)'은 남악회양 스님의 깨달음과 유사하다. 육조 대사가 묻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할 때, 회양은 어쩔 줄 모르다가 8년만에야 깨치고 나서 말하기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공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무슨 물건'이 바로 '이뭣고' 화두의 근원이 된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이니, 불성(佛性)이니, 주인공이니, 무일물(無一物)이니, 무위진인(無位眞人)이니 하는 등의 이름을 붙이지만 실은 설명이 불가한 '그 무엇(거시기)'이다. 모양과 형상이 없기에 말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사라진 곳에서 스스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인 것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異見王)으로부터 불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불성은 작용 속에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왕을 깨닫게 했다는 이런 게송이 전한다.

"태내에 있으면 몸이요, 세상에 살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며, 귀에 있으면 듣는다는 것이며, 코에 있으면 향기를 분별함이요, 입에 있으면 말하는 것이며, 손에 있으면 잡는 것이요, 발에 있으면 걸어가는 것이다. 두루 드러내면 모래알 같이 무수한 세계를 다 아우르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에 있다.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자는 그것을 불성이라 알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정혼(精魂)이라고 한다."

이견왕도 이 게송에 깨달았는데 그 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당체(當體)에 대해 진실로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와 인생을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깨달음의 성품'(覺性)이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의심해야만 화두가 저절로 들리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김성우 객원기자**

"깨달음의 성품을 보면 그대가 곧 부처다"

居士禪의 리더들 ② 현정선원 **대우** 거사



현정선원에서 수행자들에게 열강하는 대우 거사.

사량 · 분별심 깨뜨리는 질문과 대답으로 무심히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힘 길러줘

"이 모든 일은 누군가 작용하는 이가 있어서 공력(功力)을 들여서 말을 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靈覺性)이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감응해서 지음 없이 나투는 '여래의 미묘한 작용'(如來妙用)인 겁니다. 짓는 자가 없는데도, 아니, 오히려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작용 없는 작용'(無作之作)이 다함이 없으니, 이보다 더 미묘하고 신령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소재한 현정선원(顯正禪院). 78세의 노 거사가 40여 남녀 수행자를 대상으로 고요하면서도 단호하게 주객을 초월한 무공용지(無功用智)를 설하고 있다. 어떠한 주제도 정해 진 바 없고, 즉흥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지는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끝없이 일어나는 분별지를 깨부수는 대우(大愚) 거사의 법문은 물 흐르듯 거침이 없다. 걸림 없는 설법이 선종 어록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 마치 옛 조사가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하지만 그의 설법은 간화선을 비롯한 다양한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구참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상승의 법문이어서, 일반 불자들이 알아듣고 체득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2002년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란 첫 설법집을 냈을 때 처음 인터뷰를 가진 대우 거사는 5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변함없이 확신에 찬 설법에 임하고 있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법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 것이지만, 정기법회의 횟수는 달라진 게 없다.

누구를 만나든 끊임없이 상대의 사량 · 분별심을 부수어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임을 깨우쳐주는 대우 거사는 수행과 관련한 그 어떤 '좋은 것도 없느니만 못하다'(好不如無)고 강조한다. 이 마음은 본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아무것도 밖에서 얻을 것이 없기에, 어떤 특정한 수행 방편에 의지하여 반복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만약 현재 분별하고 운동하는 '신령한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당신의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거늘, 어찌 허망하게 밖으로 구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라며 반문하곤 한다.

대우 거사는 이처럼 모든 수행방편을 배제하고 오로지 문답과 설법만으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과학도 출신의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승진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어느 날 홀연히 깨달음을 얻어 설법에 나서게 됐다는 이야기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48세에 문득 깨달음을 얻고 일상인으로서의 삶을 접었다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그로서는 좌선과 염불, 독경 등 전통적 수행법을 고수하는 기존의 불교 교단 안에 머물 수가 없었다.

이 무렵 그는 1970~80년대에 부산과 경남 산청에서 거사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 1908~1985) 거사와 인연이 닿았다. 백봉 거사 보다는 10살 이상의 연하임에도, 함께 기성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법을 펼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백봉 거사는 철야정진이나 참선 같은 방편을 사용했고 그는 '언어'만을 불가피한 방편으로 생각해서 방향이 조금 달랐다. 그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수행법이 있을 리 없었던 것이다.

대신 그의 유일한 방편인 설법은 대단히 '현대적'이다. 그의 언어는 매우 논리정연하고, 불경과 선어록은 물론 현대과학을 비롯한 세상사를 두루 꿰고 있다.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승려, 대학교수까지 각 계각층의 지성인들이 법문을 경청하러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철저한 무위법(無爲法)을 강조하기에 현정선원이 명실상부한 '본분도량(本分道場)'임을 표방한다. 결코 무엇을 가르치거나, 닦고 배우고 하는 따위의 모든 유위행(有爲行)에 의존함이 없이, 곧장 '자기의 마음'을 밝힘으로써 곧바로 '나(我) 없고, 함이 없는(無爲)' 자리로 직입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지금껏 밖으로 내달으면서 온갖 이상(해탈, 열반 등)을 추구하던 그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본래 스스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몰록 깨달음으로써(頓悟)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자는 것이다.

"다만 '무심히 모든 것을 담담히 비출 수 있어야'(寂照) 비로소 모든 게 다 쉬어져서, 바로 진리의 길을 조용히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사물에 대해서 결코 비판하거나, 또는 정당화하거나 하는 일체의 조작을 당장 그만두고,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세로' 그저 조용히 비추기만 한다면, 내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곧 머지않아서 그 금강 같은 법신(法身)이 우뚝 드러나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같은 결과를 기다리거나 조급하게 재촉하는 일이 있으면 곧, 모든 수행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결국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도(道)를 담담히 따르는 것이 바로 '일승의 법문'(一乘法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대우 거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 등 방문이 어려운 수행자들은 인터넷 사이트(www.fuoyee.or.kr)를 통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02)582-9371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철야 참선법회
봉화 축서사는 매달 셋째 토 오후 9시부터 익일 4시까지 선원장 무여 스님의 법문과 지도점검으로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간화선 기초 수행방법, 병통의 극복, 일상 생활에서의 화두 참구법, 점검 등으로 운영. (054)672-7579

좌선 및 능엄경 강송
서울 보림선원(02-914-6187)은 매주 토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토요철야정진을 갖는다. 부산 보림회(011-9537-8186)는 매주 수 저녁 7~10시 좌선 및 야청 거사의 능엄경 강송 시간을 갖는다.

우 소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은 우 소다나 사야도(미얀마 마하시 수행센터)의 지도 아래 4월 21~27일, 7일간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 행선, 일상관찰수행과 법문 및 면담 등으로 진행. (033)644-1686

위빠사나 집중수행
봉인사는 4월 19~23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김열권 법사가 마하시 방법을 기초로 부처님 경전의 표적 관찰법을 병행해 사념처 가운데 법념처 중 오온과 12연기 관찰법으로 지도. (031)574-5585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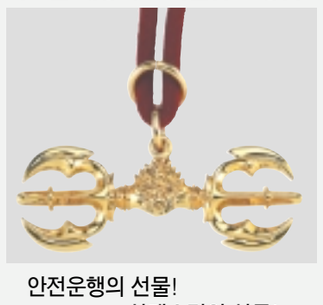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 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최고



수맥파가 각종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밝혀지고 조상의 산소 밑에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간신문 특집씨리즈를 본 불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에도 우리집 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조상 산소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수맥감정문의가 신문사에 줄을 잇고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맥과 수맥파를 정확히 찾아내는 인사는 스님몇분과 몇분의 신부 그리고 일반인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대학에 수맥감정학과가 있고 수맥감정사무소와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2002년 암환자 30명에 대한 가정 수맥파 감정을 실시한 결과 29명의 가정에서 강력한 수맥이 흐르고있어 수맥파가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암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암뿐아니라 각종 중증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발표는 영국과 프랑스등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스님들께서 절이나 산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낼 수 있다. 그림1과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 되지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 7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⑩ 음식 먹는 것에도 '도'가 있다

"감사히 공양하고 건강하게 살자" 발원

불평하며 먹는 것과 감사하며 먹는 것 '공덕'도 반대

음식 맛 따지는 것도 분별심 "놓아라"

기대와 다른 음식

"아니, K씨, 어제 괜찮았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동료가 물었다. K씨는 영문을 몰라 "뭐가요?" 라고 되물었다. "뭐라니요, 우린 모두 배탈이 나서 혼났는데 K씨는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 하면서 비로소 토요일 회식자리가 생각났다.

모처럼 팀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일곱 명이 모였다. 팀장이 소문난 한식집을 알아 두었다고 자랑해서 모두 기대하게 되었다. 과연 들어가는 현관에 유명인 누구누구가 왔었다고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팀장이 호기 있게 한정식을 주문하였다. 질 좋은 음식재료와 맛에 비하면 값이 비싸지도 않다면서 또 자랑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기대하던 맛이 아니었다. 야채는 신선하지 않고 전은 바로 만든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물도 냉장고에 오래 넣어 두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찌개는 너무 짜고, 도대체 회사 앞의 늘 가는 조촐한 한식집보다 훨씬 못하였다.

묵묵히 공양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거 음식이 왜 이렇지?" 하며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소개한 팀장도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팀장이 종업원에게 "여기 일품이라는 묵은 김치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묵은 김치는 다 떨어져서요, 오늘은 다른 김치인데요"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까지도 형편없는 것이었다. 이제 팀장은 앞장서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내가 속았다, 아니 예전엔 좋았을 텐데 경기가 어려워 변한 것이다 등등. 그 때부터 공양을 마칠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온통 밥상은 사람들의 불만과 실망, 원망의 소리들로 가득차고 있었다. 음식을 공양하는지 불평을 공양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K씨는 달랐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고 있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음식이 좀 이상하다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알고 있었다. 음식공양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는데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식사를 해도 공양이 나오기 전부터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음식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분들의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 발보리심하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발원한다. 동시에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 세포들에게도 "감사하게 공양하고 건강하게 부처님일 하자" 하며 마음을 낸다.

특히 음식이 맛이 없거나 입에 맞지 않을 때는 더 간절히 마음을 낸다. 분별심을 놓으며 수미산만한 업을 녹여야 하는 불자가 아닌가. 어차피 먹게 된 인연이라면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하자는 생각이다. 사실 북한이나 지구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 탈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삼보의 지극한 은혜 아니겠는가. K씨는 그날 회식에서도 음식이 예상과 다름을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며 마음을 다스려가고 있었다. 불평하는 구업(口業)은 커녕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

한 생각 굴림의 공덕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배탈이 났지만 K씨는 무사했다. "만일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의 업입니다. 왜 저까지 거기에 얽혀 불평하는 악업을 지어야 합니까. 오히려 잘못한 이의 업을 안타깝게 여겨주는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심은 못 가질망정요." K씨는 그래도 배탈까지 피해갈 줄은 몰랐다면서 "일상의 모든 것을 한 생각 굴림의 공덕으로 몰록 녹게 하는 무위행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상 여행의 행복 (중)

아일다 서울 마포구

비록 가난한 삶이지만 집 앞에 꽃 화분을 기르고 색색의 페인트도 칠하고 작은 창문엔 하늘거리는 커튼도 달아 놓아 예뻐 보였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유를 잃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감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을 구경하러 온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톤레삽을 나와 작은 킬링필드로 향했다. 그 옆에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와타마이 사원에서 우리 일행은 마가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비명상을 했다.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염을 보내고 그 사랑과 자비를 점점 넓게 방사해 갔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염을 보내는데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과 그 유족들의 슬픔이 느껴져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흘렀다. 부디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온해지기를….



그림: 문병성

킬링필드서 '자비명상' 눈물 나와

앙코르와트 등 사원관람 '무상' 실감

암살라민속쇼를 보며 저녁공양을 하고 호텔에 투숙했다. 쌓인 피로를 풀고 고풍스런 인테리어의 중후한 맛이 나는 멋진 방에서 느낌노트를 기록하고 장점 적기 가족 긍정명상도 적어 넣었다. 그렇게 조용히 여행 둘째 날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아침명상을 하기위해 바이욘 사원으로 향했다. 사원은 약 60미터의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묵언하며 산길을 맨발로 걷기 명상하며 올라갔다. 구비구비 완만한 산길엔 새가 지저귀고 시원한 바람은 솔솔 불어와 뺨을 스쳤다. 맨발은 땅의 감촉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고 난 그 아름다운 길을 끝없이 걷고만 싶었다.

정상에 이르니 앙코르 유적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연기를 해 보았다. 리얼한 연기를 하라는 주문에 쑥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지만 '나는 못한다, 부끄럽다' 라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뛰어넘어 한번 해 보라는 스님의 말씀에 쑥스러워하는 나를 옆으로 밀쳐두고 연기에 몰두했다. 재밌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 내 모습에 새삼 놀랍기도 했다.

그리고는 짝을 지어 장님 체험을 했다. 손수건을 풀고 산 아래 경관을 보며 눈이 온전해 볼 수 있음에 감사드렸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명상은 이어졌다. 짝을 지어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대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번갈아 염불하며 산을 내려 왔다. 외면 윌수록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더 솟아나는 것이 신기했다. 기쁜 마음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는 점점 밝고 명랑해졌고 기분은 당장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가벼웠다. 참 즐거운 체험이었다.

코끼리 테라스, 레프왕 테라스, 타푸롬 사원을 구경했다. 사원의 복잡한 구조와 정교한 장식들을 보며 그 당시의 번영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삶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그 당시 이곳에 북적대던 인파와 수행하던 승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평양냉면으로 점심공양을 마친 뒤 세계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와트로 향했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건축의 구조와 균형, 기술은 매우 뛰어나고 신비스러워 우주인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서쪽 정면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는 앙코르와트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사원은 지옥계, 인간계, 천상계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여러 개의 방 사이를 연결하는 회랑 벽면엔 힌두신화를 부조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 놓고 있었다. 맨 중앙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천상계를 올라가는 계단은 무척 가팔랐다. 천상계를 들어가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걸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길을 달리며 캄보디아에 작별을 고했다.

호치민의 입국심사관들은 미소를 지으라면 얼굴에 경련을 일으킬 것처럼 딱딱하고 냉랭했다. 모두 평등하게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사회주의가 도대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

아침공양 후 약 4시간이 걸려 미토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유니콘 섬으로 가서 다시 짱크선을 타고 정글탐사도 했다. 앞뒤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일행이 네 명씩 앉았다. 배를 내리며 "씬깜언(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쪼글하신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

그곳에서 로얄제리차 민속주 열대과일 등을 맛보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진도 찍었다.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맛보는 것은 여행의 묘미가 아닐 수 없었다. (계속)

신 행 게 시 판

능인선원 춘계 삼천배 철야용맹정진

서울 능인선원이 4월 14일 춘계 삼천배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삼천배 기도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3천 부처님께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려 참회하는 기도법. 능인선원에서는 1년에 두 번 봄 · 가을에 정기적으로 철야 용맹 정진을 하고 있다.
입재는 14일 오후 8시, 회향은 15일은 새벽 3시이다. 동참금은 1만원. (02)577-5800(내선 242)

송광사 대승사 연합신도교육

순천 송광사와 송광사 순천포교당 대승사가 대승사에서 4월 10일~6월 26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연합신도교육을 실시한다.
前 화엄사 강원 강사 연광 스님이 불교 기초교리를 송광사 강원 강사 원오 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한다. (061)755-0108

화성 용주사 어린이 법회 시작

화성 용주사가 4월 15일 첫 어린이 법회를 마련한다. 미래 불교의 새싹인 어린이 불자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어린이 법회를 만든 용주사는 어린이 법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면 어린이 법회에 동참할 수 있다.
15일 첫 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용주사 천불전에서 어린이 법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031)239-9391

대구 불광사 제5차 산행

대구 불광사는 4월 15일 여수 향일암으로 제5차 산행을 떠난다.
불자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전국 4대 관음기도처 중 하나인 향일암에서 부처님의 가피도 느껴본다. 암벽을 타고 오르기도 하고, 암자근처에 이르면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 두개사이로 난 석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아기자기한 등산코스다. 출발시간은 오전 8시, 대구 프린스 호텔 앞에서 출발한다. (011)530-4500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근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 **교육목표** • 근본불교의 얼이 살아 숨 쉬며 승화하는 본 대학에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스님을 기다립니다.
• 교계 대덕스님과 실무전문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과정**

기본과정(3개월)	교 과 목	사물(목탁, 요령, 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불고시식
중급과정(6개월)	교 과 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엄시식, 다비식
특별과정(3개월)	교 과 목	재의식에 필요한 모든 것(번, 금은전, 반야용선), 태평소적
작법과정(3개월)	교 과 목	천수바라, 사다라니 등
불교교리	교 과 목	초급반(3개월) 기초교리 중급반(1년) 경전
생활역학(3개월)	교 과 목	명리 및 육효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방법
기 본 과 정 30명 중 급 과 정 30명 작법 및 특별과정 20명 불 교 교 리 30명 생 활 역 학 약간명	본 종단스님 및 타 종단스님	입 학 원 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여 권 용 사 진 3매 승 려 증 사 본 1통	2007년 7월 1일 - 7월 30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수 강 료** • 본 종단 종도 15만원(과정별로 문의)

◗ **입학일시** • 각 학과 공히 2007년 9월 1일(토) 오후 5시 개강(근본불교대학)

한국근본불교조계종과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모십니다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서류(총무원 및 지방교구비치)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여권사진 4장 - 이력서 1통

■행자(예비승)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며 만50세 이하.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을 본사나 말사에서 수행할 수 있음.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

전화 031)217-2170.2633 / 팩스 031)217-263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13 http://www.keunbon@keunbon.org

직지사 차 명상 템플스테이

차 명상은 현대인들의 근기에 맞도록 차와 여러 유익한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행 하도록 하고 이러한 수행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체험하게 해준다.



◆ 일 시 : 2007년 4월 28일 ~ 29일(1박 2일)
◆ 장 소 : 직지사 설법전
◆ 내 용 : 비우기 명상, 차 명상, 음식(공양)명상, 자애 명상, 걷기 명상, 청소 및 생활 명상
◆ 인 원 : 선착순 30명
◆ 참 가 비 : 10만원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 문 의 : 직지사 종무소 ☎ 054)436-6084, 6174
www.jikji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상상미술관과 함께 떠나는 동화 속 세계여행 전이 열린다. 5월말까지.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청소년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활동시간은 4~5월 놀토(쉬는주 토요일)며, 기증물품 정리, 매장 판매, 생생몰(인터넷 쇼핑몰), 기능안내 도우미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홈페이지(www.sy0404.or.kr) '봉사활동 신청하기'에서 확인. (02)749-0352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나무의 방' 특별전을 5월 6일까지 연다. 은행나무로 제작한 17~18세기 감실(신주를 모셔두는 장), 소나무를 이용한 18~19세기 교의(신주 모시는 다리가 긴 의자), 느티나무로 만든 뒤주,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함께 활용한 경기찬장 등 전통 목 가구 100여 점이 사랑방, 안방, 사당, 부엌, 목 가구 체험공간 등 실생활 공간 배치에 맞춰 전시된다.(02)724-0149

부산 브솔청소년문화원에서는
신체적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기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4월 셋째 주 토요일(15일)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뇌의 활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주제로 진행된다. 건강에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051)632-0212

서울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직업탐험단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 직업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며 모의면접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활동기간은 1차 5월~6월, 2차 7월~8월이며 9월중 모의취업박람회에 참여한다. 대상은 중고생, 1, 2차 각 30명씩 접수 가능. 참가비 1만원. 4월말까지 선착순 모집. 직접 방문 후 접수.(02) 749-010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청소년 건강비법 하나 - 운동



왜 운동만 하면 피곤한 걸까?

"나도 '몸짱'이 되고 싶다고~오!"

정신·육체 조화 이룬 단련 필요
쉬운운동 강한운동 하루씩 교대
정리 운동으로 혈관 회복 시켜야

중학교 3학년 기현이(서울 신림동)는 오늘도 절규한다. 요즘 '몸짱'이 되고 싶기 때문. 건강 보다는 여학생에게 멋있는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요즘은 근육질이 대세!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학원시간 때문에 주말 정도에나 즐긴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가끔 격하게 운동하는데도 근육은 늘지 않고 전보다 피곤해지는 것만 같아 고민이다. 왜 운동을 해도 피곤하기만 할까? 올바로 근육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운동의 중요성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운동은 ▲노화방지 ▲허리근육 강화-디스크 예방 ▲숨은 지방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운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문제는 청소년기부터 운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민체력센터 정동춘 운동처방실장(운동생리학박사)의 조언을 듣고 운동, 바로 시작해보자.

들어봤나, 운동의 세 가지 종류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짧은 시간 부담스럽게 하는 운동, 장시간 쉽게 하는 운동, 정적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운동하면 떠오르는 과격한 신체활동으로부터 인식을 바꿔보자. 운동이 단순한 신체활동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뤄져있다. 그리고 정신의 표현은 모두 육체를 통해서만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운동은 그냥 육체단련이 아니라 '조화로운 신체단련'이라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천히 장시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지구력을 기르고, 단시간에 몸을 한계까지 이끄는 운동으로 근력을 기르면서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적 운동(명상),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몫으로 필요한 것이다.

쉽게 어렵게, 리듬을 타면서

운동은 시작할 때는 쉽게, 천천히, 유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 이는 위에서 말한 장시간 운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에 적응되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어려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단시간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달리기' 운동이라 할지라도 쉽고 천천히 할 때는 마라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단시간 근육운동으로는 100미터 달리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등산의 경우도 장시간 운동이 필요할 때는 천천히 산을 오르고, 단시간 근육운동으로 할 경우에는 빠른 걸음으로 약간 뛰듯 산을 오르면 된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한다. 정 실장은 "특히 정리운동은 신체 각 기간에 나가있던 혈액을 혈관으로 회수시키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리운동 없이는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종합해보면, '준비운동→쉽고 천천히 하는 운동→빠르고 강하게 하는 운동→명상 등의 정적 운동→정리운동'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셈이다. 쉽고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고 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루씩 교대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다른 운동 방식을 알고 싶다면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체력증진시스템(www.teen-fitness.com)을 이용해보자. 가입하면 적절한 운동 처방은 물론, 개인체력정보와 정확한 운동방법까지 알 수 있어 요긴하다.

이것은 피하세요.

'과유불급'이란 말은 운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즉, 모든 것은 정도가 있기 마련. 운동을 하면서 과도한 경쟁심, 조바심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있을 때 마다, 1시간 이내에서 운동을 하고 10분 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프고 짜증이 자꾸 나며 ▲몸이 경직되어 있고 ▲불쾌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운동 할 때마다 몸이 아파진다면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럴 때는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운동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정 실장은 "운동은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운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등을 찾아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한 가지 당부한다.

"체력 단련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사소한 안전수칙을 어겨서 운동이 싫어지면 곤란하겠지요. 준비된 사람만 진짜 '몸짱'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운동 수칙}

1. 준비운동 필수-발목 염좌, 골절 예방을 위해 5~15분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2. 운동복은 알맞게-피부가 지나치게 노출되면 기구에 다칠 수 있다. 또 옷이 너무 커도 기구가 감기거나 동작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3. 기구 운동 시에는 장갑 착용-손바닥 피부가 딱딱해지는 현상을 막자.
4. 혼자 보다는 둘이서-지도자나 파트너가 있으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5. 운동 중 물은 충분히-1.5리터 이상. 20분마다 조금씩 마셔준다.
6. 정리 운동도 필수-가볍게 제자리 뛰기, 스트레칭 등을 반드시 한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운동이 필요해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괴롭다
-자주자주 피로를 느낀다
-툭하면 아프고 쑤신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다.
-짜증이 자주 나고 화가 치민다
-도통 즐겁지가 않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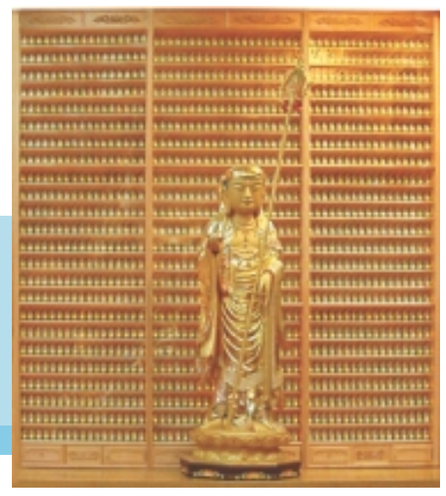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화수분'이란 제목의 우리 소설을 읽어보았나요? 전영택의 단편소설이지요. 가난에서 소재를 얻어 비극적인 삶을 이야기했는데도 현실비판이나 저항보다는 화수분을 읽는 사람에게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그럼 그 낱말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문학작품을 읽다보면 우리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화수분 :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음을 이르는 말.

가쁘다 : 몹시 숨이 차다. 힘에 겹다.
폐 한쪽을 들어낸 소령은 침대에서 내려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서 네댓 번은 쉬어야 된다. (홍성원, 육이오)

가시눈 :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 말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그는 가시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갈피 : 1.겹치거나 포갠 물건의 하나하나의 사이. 또는 그 틈.
십칠팔 년 전의 일이 노트 갈피 속에 숨어 있다가 되살아왔다. (황순원, 움직이는 성)
2.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어름.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혔다. (이호철, 문)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보편적인 인간 본성 희극적 묘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세르반테스作 '돈키호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키호테를 닮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떨까 생각하며 읽어보시면 더 재미가 있고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입니다.

스페인의 라만차 어느 마을에 사는 시골 신사가 밤낮으로 기사 이야기만을 탐독한다.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게 되어 기사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약자를 돕기 위한 여행길에 오른다.

그는 부조전래의 남루한 갑주를 몸에 걸치고 늙은 말 로시난테를 잡아탄다. 돈키호테는 정의를 사랑하고 이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며, 오직 이상만을 추구하는 고매한 광인이다. 한편 산초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을 잊지 않으며, 욕심 많고 겁쟁이인데다가 교활하지만 주인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지도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돈키호테의 몽상과 이 세상의 산문적인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이야기, 해학적인 동시에 본인들에게는 비통한 실패를 연출한다는 것이 전편의 취향으로 되어 있다. 전편은 일화의 연속으로, 그 사이에 문학, 정치, 철학 등에 관한 논의가 끼어든다.

이 작품의 완전한 제명은 '기상이 놀라운 향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에요. 전편 (1605년) 52장, 속편(1615년) 7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작자가 이 이야기를 쓴 동기는 당시의 스페인 사회에 유행하고 있던 기사 이야기의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출현했을 무렵에는 기사 이야기의 유행은 상당히 빛바래고 있었지요. 문학이 창조해 낸 으뜸가는 인물 전형 중의 하나는 돈키호테일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에서 쓰여 진 <돈키호테>가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것은 주인공이 기상천외

문학이 창조한 으뜸가는 인물
현실과 이상간의 충돌 유머로

한 인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일 것에요. 세르반테스는 가장 기상천외한 인물인 돈키호테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그럴듯하게 묘사해 냈지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희극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치광이나 어릿광대 같은 희극적 주인공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보면 비극적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희비극은 시대착오적 기사소설 편집증에서 비롯되죠. 몰락한 하급귀족 출신으로 50을 넘긴 나이에 중세의 유물인 기사소설 탐독에 미쳐 있던 주인공이 마침내 선대에서 물려받은 녹슨 투구와 갑옷, 낡은 창과 방패로 무장을 갖추고 시대를 거슬러 편력 기사로 나서는 거예요. 출정은 세 번에 걸쳐 이어지죠.

처음 출정은 어느 여름 이른 새벽 이웃들의 눈을 피해 혼자 떠나요. 여기서 돈키호테는 현실과 기사소설 세계를 혼동하며, 멋대로 세상을 상상하고 일방적인 환상에 빠지죠. 한낱 주막 주인이 주관하는 기가서품 의식은 기사소설 세계에 대한 돈키호테의 편집증적 도착이 빚어낸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출정에는 우직한 시골 농부 산초를 설득해 종자로 동반하고 나서죠. 여기서 주인과 종자 사이에는 복고적 기사세계의 이상주의와 그것을 부인하는 현실주의가 간단없이 충돌하며 긴장과 유머를 빚어냅니다.

<돈키호테>는 사람들로부터 '인간의 책'이라 불리며,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경향, 즉 이상적인 일면과 현실적인 일면을 두 사람의 작중 인물을 통하여 표현했어요. 주인공 돈키호테는 기사도에 관한 책을 너무 탐독하여 이성을 잃고 오로지 몽상에 잠겨 모험을 찾고 이상을 추구하죠. 반대로 종자 산초 판사는 매우 현실적이며 겁쟁이인데다가 고지식하며, 대식가인 동시에 상당히 교활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주인에 대하여는 어디가지나 충실하답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성격을 햄릿과 비교하여 돈키호테는 낙천형, 햄릿은 회의형이라고 했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새로운 친구 사귀기 두려워요

고등학생이에요. 여자구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

(ID:곰곰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중요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기회나 또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오면 피하지 말고 그것에 부딪혀 보세요. 문제 상황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작 그 스트레스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나면, 오히려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은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조함과 불안감을 참아 내고 일단 그 상황에 뛰어 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그런 상황에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론 불안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만' 이라 외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다섯 번씩 외워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정서는 그대로 두면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 그 생각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자기 주술을 거는 거죠. 상황에 부딪힐 용기가 났다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인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좀 더 발전하면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시도도 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까말까 망설이지 말고 눈 딱 감고 인사를 해 버리세요.
불안하고 초조해 하며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더 두렵고, 직면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나 비하감만 더 느껴질 뿐일 거예요. 일단 부딪혀 보고 설령 실수나 실패가 있더라도 다음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요.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어', '실수하면 어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라는 대범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자고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산야초 향(좁) 잎에 7년 숙성황토
달마도량 거창 달마사
뽀얀 미백 돌려줘!!!



지난 7년전 신문과 방송언론을 통해 황토달마가 처음으로 알려진 일이 있다. 그 귀한 재료가 반죽되어 산야초 향 재료 속에서 장장 7년 동안 숙성되었다. 얼마전 그 황토를 달마조각을 위해 꺼내던 날 황토가 얼굴과 손에 팩이 되어 뽀얗게 되어 서로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냥 황토팩이 아니다. 산야초 머금고 얼고 녹아 7년 숙성된 팩이다. 지금 달마사에서는 바빠진 이유가 있다. 검고 주름진 피부가 평생 햇빛 한번 안본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웃주민들이 찾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잔주름이 제거되어 놀라워 하며 뽀하얀 피부를 기다리는 분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청오스님은 맑고 밝은 얼굴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 또한 마음을 정비하는 수행이 될것이라고 했다.


크기(35X52cm)달마복등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야초 원료로 태우지 않는 향 보급으로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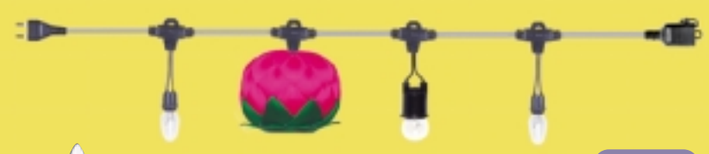
■ 7년 숙성 아미수 황토팩 특징
1.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자연팩 화장독을 제거하여 지금보다 더 노화되지 않고 사는 비결.
2. 청오스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 맷돌에 갈아 풍구에 날려 물에 앙금 제거 후 7년 동안 산야초에 숙성으로 금쪽같은 팩이다.
3. 한정품(대량생산이 아님) 미백과 잔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능.

아미수팩 녹차 1통 300g - 3만원
(2통 이상은 팩, 붓, 아미수물, 배송비 무료)
더 좋은 효과를 위하여 차스푼으로 소복하게 2스푼(약간 두껍게 발라 주세요)
구입문의 055)941-1083 010-4595-0017



덕유산 달마사
●주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번지
●매주 일요일마다 달마사에서는 무료황토팩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
●계좌번호 : (농협) 841067-52-031220 김정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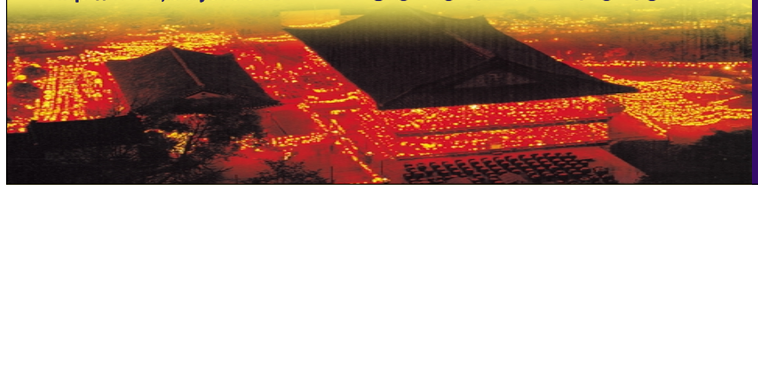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佛祖의 활구 짧지만 긴 울림으로 떨치다

진제 스님 상당법어 81칙 '옛 거울에서 달을 건지다'



중국 '선의 황금기'였던 당대(唐代)에 '남설봉(南雪峰) 북조주(北祖州)'란 말이 있었다. 설봉의 가르침과 조주의 가르침이 남북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시대, 두 거장이 활동하던 지역에 따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에 '남진응(南震應) 북한영(北漢永)'이란 말이 있었다. 근대 3대 강백으로 한영 스님과 금봉 스님, 진응 스님이 꼽히는데 진응 스님은 천은사 대원사 화엄사 등에서 한영 스님은 개운사 대원암에서 강론을 펼치며 남쪽과 북쪽에서 강백으로서의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선가에서는 '남만공(南滿空) 북한암(北漢岩)'이라 하여 만공 스님과 한암 스님을 추앙하기도 했다.

요즘은 '남진제(南眞際) 북송담(北松潭)'이라 하여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사진)과 인천 용화사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높은 선지와 덕화를 칭송하고 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봄소식인 듯 '남진제'의 할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진제 스님의 상당법문 81 칙(則)이 <옛 못에서 달을 건지다>란 책명으로 묶어져 나온 것이다. 동화사 금당선원과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설한 동 하안거 결제 해제 법어와 백양사 해운정사의 무차선회 법어 등이 실렸다. 선사의 법어는 길지 않다. 짧은 말씀으로 길고 큰 울림을 남긴다. 역대 선사들의 어록이 소설처럼 길었다면 선불교는 소설이 되었을 것이다. 짧은 가르침으로 극명한 심지를 칼질하는 솜씨야 말로 선불교를 선불교이게 한 힘이다.

진제 스님의 상당 법어들은 짧지만 결코 한 숨에 읽고 덮을 수 없다. 읽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한 꼭지를 읽고 사흘을 음미해도 가슴이 뚫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법어의 전형이라 할 진제 스님의 법어들을 읽으면 한 순간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성찰의 '의무감'이 뇌리에 꽂히기도 한다. 선사의 활발한 기상이 페이지마다 번뜩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말미에는 경허 선사에서 혜월 운봉 향곡 선사를 거쳐 진제 스님에 이르기까지 법맥이 이어져 온 '전법게'가 실렸다. 향곡 스님이 진제스님에게 내린 전법게는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지금 그대에게 활구법을 부촉 하노니/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계간 '님' 창간…만해정신 새로운 '님운동' 주도



계간 '님'
만해학술원 | 2500원

<님>이 왔다.

올 봄 처음 <님>이란 이름으로 왔지만 '만해새얼'을 바꾼 것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부정기적으로 냈던 <만해새얼>이 정기 계간지 <님>으로 새 출발 한 것이다. 생명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 평화사랑이라는 화두를 품고 온 <님>은 생명과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우리 시대를 비추는 햇볕이고자 한다.

"기룬 것은 다 님이다"라던 한용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또한 <님>의 지향이어서 소박하고 꾸밈없는 글들이 가득하다. 그 글들은 다름 아닌 새로운 '님'운동의 힘이다. 그래서 <님>은 "생명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 평화사랑으로서 만해정신은 21세기 인류가 처한 문명사적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인류가 생명사랑 평화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한다.

임연태 기자

죽음, 삶의 끝? 새로운 시작…



평화로운 죽음 기쁜환생
툴쿠퇸둡 지음
도솔옮김
청년사 | 2만8000원

티베트불교는 죽음의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최고의 명상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에게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끝없는 고통의 환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툴쿠퇸둡 림포체는 이 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을 치유하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 대비한 우리의 수행에 힘을 더해준다. 또한 죽음과 환생의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 속에 존재하는 궁극의 평화와 기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 책이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것은 죽음과 바르도(중음계)를 체험한 티베트 스승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담아낸 점이다. 이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록'들의 체험담이다. '델록'이란 쉽게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다. 즉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뒤 다시 살아난 이들이 전한 생생한 체험담은 현대 서양의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책에 나오는 가르마 왕진은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다. 그는 죽음을 맞을 때 처음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독한 갈증을 느끼며 추위로 부들부들 떨었다. 마지막에는 눈이 흐릿해지고 청력이 사라지면서 부르는 것도 들을 수 없었다. 동시에 삶의 기억들이 마음을 스쳐지나가는 동안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멎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라앉으며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 죽음의 통로에 들어설 때 흙, 물, 불, 공기 같은 네 가지 원소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다.

이 책에선 이런 분해 뒤 호흡이 멎으면 '순수한 빛'인 참본성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티베트불교에서는 죽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일들을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일 뿐임을 자각한 채 놀라지 말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면서, 멋진 미래를 맞는 황금의 기회로 변모시키라고 권하며, 그 방법을 일러준다. 하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화엄일승법계도의 인류학적 해석



불교인류학
박정진 지음
불교춘추사 | 1만원

불교는 '일자(一者)'와 '다자(多者)'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경전이 <화엄경>이고, 그것의 핵심을 뽑은 것이 바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 책은 문화인류학자인 저자가 '화엄일승법계도'를 구조인류학적으로 해석했다.

최근에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종교적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이를 흔히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천지인 사상으로 보면 초의식은 천(天), 무의식은 지(地), 의식은 인(人)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종교현상을 볼 때 초의식은 절대성과 '일자'를 추구하고, 무의식은 상대성과 '다자'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다자'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뜻하며, 비록 상대적 세계관 속의 상대로서 절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절대성 즉 '일자'는 비대칭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는 의식은 절대성과 상대성 사이에서 절대-상대적인 세계를 구축하는데, '화엄일승법계도'는 바로 절대성과 상대성을 잘 조화시키면서 세계의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설명해낸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중국 선종(禪宗)의 신화조작과 정중종(淨衆宗)' '한국불교와 무교의 상관관계' '불교와 차' 등 인류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당신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손 두었다 어디에 쓸꼬
석의선 지음
연인 M&B | 1만원

"손은 예쁠수록 보기 좋은 것이나 마음의 손이 예쁠수록 아름다움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손, 남의 상처를 닦고 어루만지는 손, 마음의 손으로 이웃의 가슴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음이니, 날마다 거울을 닦듯 내면의 손을 닦아야 한다."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전국 교도소 11곳의 교정활동에 법열을 불태우고 있는 의선 스님(지장사 주지)이 쓴 책 내용 중 일부다.

이 책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삶과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붓가는 대로 거침없이 써내려간 갸륵운 에세이 형식이지만 내용만큼은 무게감이 느껴진다. 가슴에 새길만한 주옥같은 법문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물을 무치면 보약이요, 남편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나물을 무치면 독약입니다. 손끝에서 똑같이 버무려 지는 것도 마음은 정확히 분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보다 더욱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스님의 실천수행에서 얻어진 사유의 단상이라는 점이다.

의선 스님은 "창조적 도구인 우리의 손을 단 한 순간이라도 남을 위해 사용해 봐야겠다는 보살행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죽으면 썩을 우리네 손을 아니 우리의 육신을 값있게 써 보자"고 당부했다.

"중생의 삶이 꽃처럼 부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는 스님은 '부처를 닮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며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재활원 등에서 봉사행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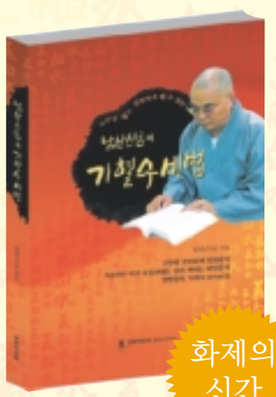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천문학자, 우주에서 붓다를 찾다	이시우	종이거울
5	육조대사 법보단경	법지 역주	운주사
6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도솔
7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8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9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얀연꽃
10	옛 못에서 달을 건지다	진제	글로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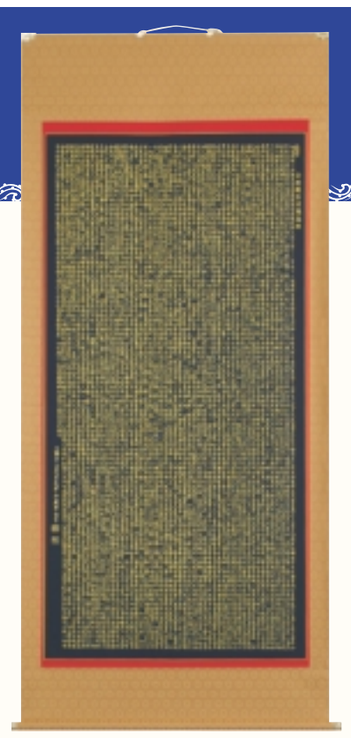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기혈수비법 강좌안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남산스님 개인 친견 가능)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역 3번 출구 내 국부카르마 강의장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MBC 휴먼 TV 공감
MBC 모닝와이드, SBS 호기심 천국 외 다수

국부카르마 문 의 080-999-1080
국민은행 103001-04-001967(예금주:윤두영)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cm × 가로 78.5cm (양면은 14K금봉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 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 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학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지역발전 큰 발원… 합창으로 한마음

제 3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5월 11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원효대사의 융화정신과 사명대사의 애국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경기북부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불음의 메아리를 전하는 무대를 연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와 구리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금담)의 공동주최로 5월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봉행되는 '제3회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음악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종단을 초월한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2개 군의 불교사암연합회 연합 합창단원과 음악인 1000여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봉행위원장인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특색과 예술성을 합창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불자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골고루 연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말처럼 이번 음악제에 연주될 레퍼토리는 다양하다. 합창단마다 무대에 오르면 우선 '자비의 나라'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염불을 하노라면' 등 찬불가를 선사한다. 이어 '그리운 금강산'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 등 대중가요를 음성공양 해 흥을 돋울 것으로 보인다.

합창단 지휘자들도 이름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질 중견 음악가들이 지휘봉을 잡아 음악의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남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오승희씨, 의정부시 불교합창단의 이진형씨,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안병길씨 등 불교음악 지휘경력이 15년 이상된 베테랑 지휘자들이다. 김양희씨가 이끄는 어린이불교합창단도 참가해 '풍경화' '부처님 나라로' 등 어린이 찬불가를 선사한다.

8개시 2개 군 지역불자 1천여명 참여
불교전통음악 현대음악 장르 다양
대운 스님 양주시 불교합창단 협연도

찬불가수 대운 스님과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협연 무대도 눈여겨 볼만하다. 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음성 반주에 맞춰 애절하고 풍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대운 스님이 '청산은 나를 보고'를 들려준다. 또한 유일하게 외국곡을 연주하는 남양주시 불교합창단의 '축제의 꽃과 아가씨(스페인 교향시)도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충분한 레퍼토리다.

지휘자 안병길씨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위성도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자주 모여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쉽지 않다"며 "경기북부지역의 사암연합회가 혼연일체 돼서 종파와 지역을 초월해 부처님 가르침을 북부도민들에게 노래로 선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2005년 의정부시 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제 1회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2006년에는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가 주축이 돼 고양어울림극장에서 제 2회 예술제를 봉행한 바 있다. 이 음악예술제는 이렇게 해마다 북부지역 회원사인 시단위 불교연합회가 순번제로 예술제를 주최하고 있다.

한편 '선인들의 참뜻을 찾아서 내 고향을 밝고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주관지역인 남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시, 파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불교연합회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031)558-010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토굴서 칩거하며 완성한 100여점 선보여

정현 스님 '날마다좋은날' 展



'날마다좋은날 되소서'

불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경구다. 이 글이 적힌 문수동자의 그림을 1만 5천여장이 넘도록 보시한 스님이 있다. 바로 前 용주사 주지인 선화가 정현 스님이다. 스님 작품의 주제와 사상들은 넓은 의미에서 우주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 중생을 위한 날마다 좋은날이 되는 것이다.

스님의 그림은 굳이 찬찬히 뜯어 보지 않아도 단박에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짐을 느낀다. 한국의 빛깔인 현란한 오방색이 색채미학의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색점들은 사찰의 단청 빛깔과 오버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정현 스님이 마곡사 내 토굴에서 겨우내 칩거하며 그렸던 100여점을 일반에게 선보인다.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종로 수운회관 3층 다보성 갤러리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등에 올라 탄 피리 부는 문수동자' '소 엉덩이 끝에 타고 있는 두 머리를 가진 새' '공명조와 연꽃' '달마도' 등이 벽에 걸린다. (041)841-7840

김주일 기자

만해문학 아카데미 열려

만해스님의 문학사상이 작품속에 녹아 있는 우리시대 대표적 문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백담사 만해마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8회에 걸쳐 '문학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제 4회 만해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4월 14일 소설가 권지예 △5월 12일 소설가 박완서 △6월 9일 시인 유안진 △7월 14일 소설가 오정희 △8월 25일 평론가 김재홍 △9월 8일 시인 황동규 △10월 13일 시인 박남준 △11월 10일 시인 송수권씨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⑦

찬불가 머리말에 개척자 심경 밝혀

1970년대 - 1980년 후편

지난 호에서 우리는 운문 스님과 서창업 선생이 찬불가 집을 편찬하면서 후기와 머리말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외국 곡을 삽입했음을 인정하고 특정 사찰의 찬불가가 삽입되어 책으로써의 가치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점도 고백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궁금하다. 과연 독자 여러분은 불교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독자 여러 분의 생 각 을 글로 보 내 준 다면 우리 나라 불교음악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필자 혼자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먼저 입을 열었을 뿐이다.

"과거 범패라는 좋은 노래가 있었으나 책에는 20여곡 외국 곡을 실었다"

어쨌거나, 필자가 먼저 불교음악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짚어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운문 스님과 서창업 선생의 말에 그 열쇠가 있다. 즉, "교리가 행동의 좌표는 될 수 있지만 행동일수는 없다."라는 말과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지적 "과거에 범패라는 훌륭한 노래가 있었으나 오늘날 불교노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라는 반성, "참된 일꾼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의 검토하여 엄격한 취사선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원, "역시 이 책에도 20여곡의 외국 곡을 실었다" "통불교를 수용하고 선의의 자극을 창출하기 위하여 특정의 노래를 실었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말과 뜻은 있으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 현대불교음악 개척자들의 심경이다.

현재 우리의 불교음악의 주소는 어디인가? 앞으로의 지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등의 의문이 화두 처 럼 뇌 리 에 각 인 되 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불교음악계는 작지만 의미 잇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교리의 행동실천방향'은 불교음악의 교과서인 찬불가 신도용과 합창용을 심의 의결하여 출판하고 있다. 또 불교합창단은 전국적으로 13개 지회로 구성되어 매년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준비되어있지 않고 예의 검토되지 못했다"라던 아쉬움은 2002년에 25명의 전문가가 2박3일 동안 외국 곡까지 심사숙고하여 찬불가를 편찬하여 출판함으로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연극집단 反 '나무물고기' 공연

연극집단 '반(反)'의 창단 10주년 기념작인 '나무물고기(木魚)'.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산 속에서 도를 닦고 있는 '이다' '바라' '하지' 스님은 20여년 전에 입적한 지산 스님의 뜻을 받들며 열심히 정진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연극은 수행생활중에 일어나는 감동과 에피소드가 아름다운 시와 노래, 음악이라는 오브제로 탄탄하게 엮어져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로 주목 받은 배우 김담희씨가 지산 스님의 애인인 소월과 명희의 역할을 3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인2역으로 맡아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시인 류시화 차창룡씨 등의 시가 감미로운 라이브 음악과 함께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다.

'나무물고기'는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우석레퍼토리 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02)762-0810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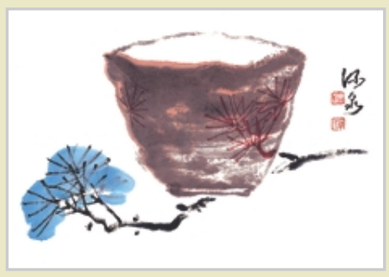


그림: 이상배 화백

월출산 견성암

장인성 시인

월출산은 열 사흘이 보름달 보는 날
달맞이꾼들이 견성암에 몰려가서
달빛만 터지게 싸들고 가는데요.
불공(佛供)은 안드리고 달만 훔쳐 간다며
궁시렁거리는 공양 보살을
부처님이 고윽히 지켜보시다
밤에는 달빛이 부처란걸 모르나고
휘엉청 휘어진 죽비를 들어
보살님 쭈구렁한 궁둥짝을 내리칠 때
춘란(春蘭)이 배를 잡고 깔깔대다가
눈꼽같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말지요.

견성암(見性庵)-월출산 기슭의 달맞이 명소로 이름난 조그만 암자. 초저녁부터 떠오르는 열사흘 보름달이 제일 보기 좋다.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200개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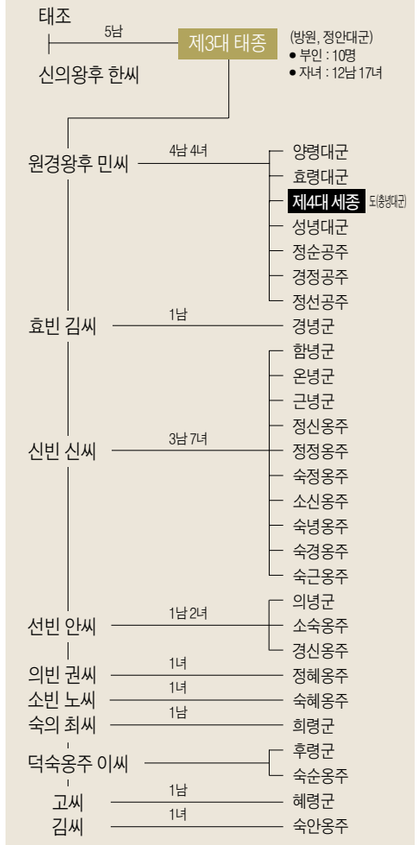
아비를 부정하리라, 척불의 회오리 시작



3대 태종 헌릉(1)

3대 태종:1367~1422, 56세.
재위 17년10개월.1400.11(34세)~1418.8(52세)

제3대 태종 가계도



태종은 대권 재수생 출신이다. 등극 후에도 합격의 영광을 맘껏 누리지 못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치루고 피방석을 깔고 권좌에 올랐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방원이 이노옴!'이다. 태종3년(1402)에 일어난 조사의(趙思義)의 난은 아버지 태조가 배후 조종자다. 이성계의 복위를 도모한 반란이다. 태종은 결심한다. 최소한의 도리를 제외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리라. 마음은 이미 아비를 버렸다.

아비가 귀히 여기는 것이라면 작심하고 능멸하기로 작정했다. 불교를 탄압, 말살하기로 작심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숭유억불은 조선의 건국이념이 아니다. 태조는 독실한 불자다. 2대 정종도 마찬가지다.

부자간의 반목을 오디푸스 콤플렉스, 거세 콤플렉스로 설명하기도 한다. 거기에 절대 권력이 개입되어 있으면 반목은 활화산이다.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의 부패와 패망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 전반에 유포된 불교적 요소를 걷어내야 조선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리학의 토대가 된 공자의 학문은 현실적이다. 불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개국 초 정도전 등이 척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태조의 의지가 굳어 강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태종의 세상이 되자 척불은 기름 부은 들불이 된다. 1400년 11월,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궁중의 인왕상을 대궐 밖으로 옮겨버린다. 인왕상은 환관 등 궐내에 거주하는 이들의 예불 대상이었다. 궐내 도량법석도 폐지시킨다.

1402년 4월, 사찰의 토지를 군대에 예속시킨다. 이 소식을 들은 태상왕 이성계가 노발대발하며, 사찰의 토지를 되돌려주고 스님들을 억압하지 말 것이며, 부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태종은 불교 탄압을 일시적으로 접는다. 왕의 의중을 읽고 있는 대신들의 합창이 그치질 않는다. 1403년 6월,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시 사찰의 토지를 몰수한다. 1404년 12월, 사간원의 건의로 부녀자들의 사찰 참배 금지, 1405년 8월, 폐사찰의 전답과 노비를 국가에 귀속, 11월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혁파한다. 유신시절 긴급조치 같은 포고령이 연이어 떨어진다. 불교의 존폐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1406년 2월, 수백 명의 스님들이 대궐 앞에 마련된 신문고를 치며 탄압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 조계종 성민 스님을 위시한 스님들이 조정의 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태종은 거부한다. 오히려 탄압의 강도를 높인다. 교단 내에 남겨둘 사찰, 스님, 노비, 전답의 수량을 규정하고 종단도 축소시킨다. 한양과 개경에는 오교양종에서 각 종단마다 사찰 1개로 한정하고, 지방의 목, 부에는 선종, 교종에서 각 1개 사찰, 군, 현에는 선종, 교종을 합하여 1개 사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한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전역에 총 242개 사찰만 남는다. 관아에 의해 몰수된 노비는 총 8만 명, 몰수된 전토는 총 6만 결이 넘는다. 11개 종단을 7개 종단으로 통폐합한다.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종, 중도종, 총남종, 시흥종만 남는다. 고려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던 승과(僧科)와 승계(僧階)도 폐지해버린다.

신진사대부의 정치 이념과 그들의 이해득실, 태종의 개인적 심사 특히 살부의식의 중심에 불교가 있었다. 개혁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탄압의 표적이 불교였다. 아버지 태조의 건원릉과 어머니 신의왕후의 제릉에는 마지못해 원찰을 세우게 했으나 자신의 능에는 생전에 엄명을 내렸다. '내 잠들 곳에는 더러운 중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고. 먼저 죽은 왕비 원경왕후 국상 때 재를 올리자, '대소 관원들로부터 노복에 이르기까지 거의 천여 명이 한데 어울려 떠들어대는구나. 부처에게 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라고 화를 냈다. 왕과 왕비 이하 사대부, 서인에 이르기까지 수륙재만 허용하고 다른 행사는 모두 철폐했다. 절에 참배하는 인원도 제한했다. '부처와 신선은 백성을 속이고 미혹케 한다. 모두 허황하고 망령되다. 천 년 후에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저희에게 달렸다' 라고 토를 달았지만 조선 왕릉 제사에 불교 의식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 태종이다. 고려 말 불교의 타락상에 대한 혐오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한 덩어리가 되어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자비, 깨달음, 성불은 그에게 어지럽고 공허한 연기였다.

태종은 조선 역대 왕 중 최고의 야심가, 지략가, 정력가다. 권력의 세계에서 통할 리 없지만 그의 용맹과 지략과 정력이 여법하게 쓰였다면, 아쉽다. 산술적 수치가 큰 의미가 있을까 만은 태종은 부인이 10명이다. 랭킹 2위다. 1위는 9대 성종과 11대 중종이 각각 12명이다. 자녀수로는 태종이 랭킹 1위다. 12남 17녀 도합 29명이다. 자녀가 많다고 세간에 알려진 세종은 18남4녀, 22명이다.


선죽교. 태종(아방원)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진 역사의 현장.
방원은 수하 조영규를 시켜 이곳에서 정적 정몽주를 죽였다.

태종 즉위와 동시에 인왕상 궐 밖으로 옮기고 도량법석 폐지
스님들의 탄압 중지 요청에도 전국사찰 · 종단수 대폭 축소
왕족과 사대부까지 수륙재만 허용 왕릉 불교 의식 원천 봉쇄


헌릉의 제향.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헌릉은…

헌릉은 태종과 원비 원경왕후 민씨의 쌍릉이다. 가까이 23대 순조와 비 순원왕후 김씨의 합장릉인 인릉이 있다. 합쳐서 헌인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3-1 면적 1,193,071㎡(36,904평) 헌릉은 두 개의 능을 난간석으로 연결했다. 남한에 있는 왕릉 중 유일하게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호, 석마가 다른 왕릉의 두 배인 각 2쌍씩 설치되어 있다. 곡장 안의 석호, 석양 석물이 총 16개다. 특히 능의 뒤편에는 석호 네 마리가 버티고 있다. 모두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대단한 경호다. 능침 옆에서 오른쪽을 내려다보면 경호는 더욱 심하다. 국가정보원이 거기 있다. 태종의 성품과 어울리는 기관이 외호하고 있다.

헌릉이 있는 대모산(大母山)은 육산(肉山)이다. 물이 많다. 원래 대고산(大姑山), 할미산으로 불리었는데 태종이 이곳으로 오자 대모산으로 바뀌었다.

능지로선 부적합하다. 태종은 재위 당시 명당을 찾아 1415년 지관 이양달의 추천으로 이곳을 수릉으로 택했다. 1420년 왕비 원경왕후가 승하하자 이곳에 안장하고 1422년 자신도 이곳에 안장됐다. 후에 태종 곁에 안장됐던 세종은 여주로(영릉), 문종은 동구릉으로 천장했다. 헌인릉 정자각을 조금 벗어나면 작은 늪지대다. 능의 곡장 안에까지 배수로를 파놓았다. 능침 개방 시간:월~금, 일요일 오전11시, 오후2시, 오후4시. 안내 및 설명 토요일 오후 2시, 3시.

"대한민국의 최초" 이동식 전통한옥!!
언제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 이동해 드립니다

조립식 건축 | H-빔 제작 설치 | 이동식 주택및 팬션 | 전통한옥 철골조 공사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라니 하우징만의 기술적인 만남!!!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사찰의 부속건물로서, 종무소, 요사채, 삼성각,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본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83-4
TEL 031)594-7488 / FAX 031)594-2054 / 017-313-1474
E-mail : kyungki3333@naver.com
홈페이지 : www.drnhousing.co.kr
이동식 전통한옥(다실채,사랑채)건축 전문업체
다라니하우징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4월21-4월27일 (6박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가능)
• 시 작 날 – 4월 21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4월 27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복장, 쇼올,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강의 및 법문
문의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속성 개인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건강뜸
기초에서 완성까지
1개월 수료후 문서기증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리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정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1-1230
011-586-6091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을 구합니다
함께운영하거나 차후 매입도
가능하며, 사주역학을
전수 받을 분을 원합니다
(3개월이면완전 전수함)
010-5574-5662

조용한 수행도량입니다
신심있는 노부부를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도
함께 모십니다
055)854-0118

연꽃분양
백련을 키우는 승입니다
논이나 큰 다라에도 가능
하며 심어도 드립니다
010-2511-1188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교의식 및 서화등등에
능통한 법랍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불사도우며, 안거할 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 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공양주 보살님
남해 바다 근접한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수행하며
무보시로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연령 제한 없음)
▷전남 고흥
010-2511-1188

500나한 기도도량 선지사
행자
공양주 모집
055)329-105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1)673-23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모 보살님
모십니다
(6,8세 아이)
055)335-64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011-9426-4732
043)643-4733

행자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010-2521-50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까지)
▷보수 : 80만원
010-7160-273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조치원 인근 사찰
기도생활 적합니다
(월 급여70만원)
010-6430-0301

참신한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256-3483

비구, 비구니, 행자모집
범음,범패,명리,철학 배우실분
기도하면서 요양하실 분
<대전 서구 흑석동 무심사>
042)582-3196
011-9725-3196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기도하면서 평생 절에서
사실 보살님이나
처사님 그리고
출가를 하고 싶으신분을
모십니다
011-337-399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68-44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경상도, 충청도 출신 환영
061)792-0408
011-9763-5585

비구니기도스님
모십니다
▷강원도양양 동해사
010-4573-8316
033)672-29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청양)
▷60세 이하
010-8702-6769

행자 모집합니다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계룡산
대한불교 조계종
010-7667-5306

종무소
여직원 구함
불자로서 40세 미만
055)375-4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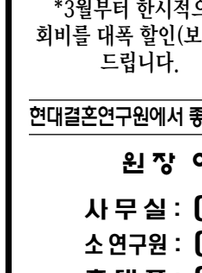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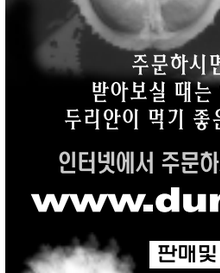
(봉) 삼삼체험 다이어트교실
비만자, 병고자, 기도자
100%성공, 만족, 깨달음
- 수시접수 -

108순례방생 (행)
매월 약사재일 방생기도
9년의 대장정 2015년 회향
- 수시접수 -

약사기도 영험도량
천호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2구
천 축 사
종무소 : 041)734-2680 / HP : 010-2243-9776
건강한 도량 · 건강을 주는 도량 · 건강하게 하는 도량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 (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신심있는 불자님들께 알립니다
삼보님께 지심귀의하옵고
산자 수려한 강원도 홍천군 공작산 자락 2천여평에 몇분 안되는 신도님들과 함께 어렵게 불사중인 사찰입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목조 산신각 6평을 완공하고 대웅전 18평 건립중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만 완료된 상태로 자금관계로 불사가 중단되었사오니 부처님오신날 등공양으로 불사에 동참에 주십사 전국 불자님들께 간절히 청하옵니다.
천지사 신도일동 합장 · 천지사 주지 청산 합장
현재 임법당 15평에 일년등 300개 비치
산신각 6평에 일년등 100개 비치 · 일일등 500개 비치
033)435-8988 (입금계좌:농협 205-01-429860 예금주:천지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010-2488-8228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월~수요일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FAX 02) 737-0696 · e-mail : onlymaum@buddhapia.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마산지역
● 법당 : 30평.명부전 : 200평
● 요사 : 12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
● 사정상 최저 급매가격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인천
● 법당 : 20평
● 요사 : 35평
● 부지 : 650평
● 가액 : 1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요사 : 15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5억 (즉시법회가능)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원주시립박물관 옆
● 2층건물 중 2층. 4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258-1147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옆 대구 중간 지점 칠곡군 양목면 소재
● 임법당, 연꽃,연못 및 정원
● 총 320평(양도도 가능)
● 가액 : 1억 2천 임대 : 보증금 300만 1년 350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김천
● 부지:1,000평
● 법당:12평
● 요사:20평
● 가액:1억2천
● 위치:경기도
● 부지:삼천평
● 법당:30평
● 요사:46평
● 가액: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내
● 대지 500평. 동양최대 삼존불 석탑 봉안
● 가액 : 2억5천만원 (절충가능)
033)766-0057

사 찰 안 내
● 위치 : 속초중심가 최요지 4층 건물 3층.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이며 환자 치료하시는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이면 더욱 좋은 곳 좌욕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꼭하실 분만 전화요망
054)956-966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20평, 요사40평,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2리
● 대지 70평, 옛 기와집. 임법당. 60년된 고찰
● 교통편리, 동네 가운데 있음
● 가액 : 1억
010-7571-245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 양도가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입(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찰안내
● 위치 : 여천군 여천읍 군청 뒷편
● 20년된 사찰, 법당1채, 요사채3칸
●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법당하나에 각각 조성되어 있음
● 가액 : 2억
010-7571-2451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15억 가격절충)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약간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위치
● 작은계곡 접하고 다용도 가능한 관리지역
● 1030평
● 가액: 5000만원
011-570-1317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삼랑진역전 10분 거리
● 총평수 : 3만 3천평
● 종교용지 1530평 + 밭 550평
● 120년 역사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정남향 토목공사 완료
● 좌청룡, 우백호, 주변경관최고
● 양도가 : 4억원
- 목 조 사 찰 -
● 부지 : 1000평
● 건물 : 목조법당 25평(5포7포)
● 요사채 : 목조+판넬 20평+20평
● 위치 : 부산바닷가 영도, 창원, 의령, 밀양, 순천 다량확보
● 가액 : 2억~7억
● 정남향 양지바른곳 바다전망이 좋은 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부터 2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6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금정마을 인법당 주차공간
● 대지 62평, 건물 32평 (법당 올 수리), 법당 28평, 산신당 2평(산신, 용왕, 칠성)
● 주지실방 4평, 친견실방 4평, 小실 2칸, 입구방 5평 판넬 (다락 5평 서실 겸 침실),공양간 25평(천막)
● 법당 : 삼존(금불) 아미타3.7, 관음3.5,대세지3.5 (관음호신불 100분) 지장단 : 지장금불2.5, 지장호신불 80분
● 가액 : 1억4천(융자 6500별도). 꼭 사실분만 전화요망
011-842-6123(주지직)

토굴 겸 별장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석포면 삼면이 바다, 바다근처
● 대지 : 93평 슬라브주택 2채
● 가액 : 9천만원(가격절충) 토굴이나 별장으로 사용가능
011-880-4221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덕산 온천 부근 (도청 이전지 10분거리)
● 부지 : 약 600여평
● 건물(법당 20평), 요사 50평 2층 20평
● 심야전기, 태양열 설치 잔디정원, 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88-6348

사찰부지(별장,팬션)안내
● 위치 : 경주 감포간 추령터널입구
● 부지 : 534평(건축 허가필)
● 특징 : 정남향 (전기,수도,전화 완비)
● 가액 : 1억 4천만원
011-9517-8526

25년된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대지 : 36평 건평 2층, 약 38평 산신기도처 국유지 약30평 있음
● 가액 : 9천 8백만원 (융자3천만원 포함)
016-651-1800
011-870-1463

현세의 김대성 같은분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은평뉴타운 대로변 임야 1만 2천평
● 최고의 북한산 전망지로 석굴조성이 가능함
● 매매가 40억(절충가)
● 석굴암 조성사업에 동업투자도 환영
017-782-528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평수 150평, 요사 2동 건평 54평
● 삼존불,산신,신중,봉안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 시설비 : 소액절충
010-6374-0034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2동
● 대지 108평
● 1층 58평(법당) 2층 53평(행사실) 3층 40평(주택)
● 농협융자 2억1천5백만원 가액:5억 8천만원
051)751-3400
010-6720-34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현대식 건물
● 부지 100평 건물 180평
● 가액 : 9억5천
※관심있는 분 전화문의바람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2구 167-1번지
● 평수:1036평, 대지:200평
● 건물:요사채+법당=90평
● 법당 40평, 요사채 방7 산신용왕당 40평
● 가격: 5억원(절충가능) 전세도 가능 굿당 할사람도 가능
043)284-776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송현동 월촌역 부근
● 평수 : 53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완비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암자 하실분 명당터 안내
●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옆
●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천봉산과 달맞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 대지:205평, 300평, 456평 건물:40평, 25평
● 7000만원 가격 협의
043)732-8285
010-3545-99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3층 25평
● 삼존불 봉안, 각 탱화 봉안
● 보증금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 법회 가능(시설일체완비)
018-31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부지 : 300여평 법당20평, 요사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노송이 우거진 경치좋은곳
02)909-0215
010-8501-6946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내 전철1호선 10분거리
● 대지 사용 500평, 법당 35평 요사채 35평, 텃밭있음
● 가액 : 6500만원
● 산자락, 등산로 입구
011-8835-8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근교
● 부지: 약2000평
● 건물:145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요사채2
● 가액 5억 3천만원
017-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가액 : 상담후 결정 (융자 1억5천 유)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산속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산사
● 내 절처럼 관리하고, 부처님 전법을 수행하며 사실 스님을 찾습니다
● 대웅전1동, 산신각1동 용용전1동, 요사채2동, 방7칸
● 전세 : 1억 돈이 부족하신분께 월세 가능
033)661-9992
011-422-0086

소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1층 방2, 삼존불, 법당집기 일체 주방기기, 가전제품 일체 화장실, 세탁실, 세면장
● 보증금 250만원/월 15만원
● 법당집기, 살림가전 일체 300만원 (철학관으로도 사용가능)
010-7760-7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신정5동
● 방2, 주방1, 화장실별도 2층 50평 법당 단독보일러
● 지장, 해수관음, 삼존불
010-5778-482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3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부지 1290평
● 건물(3동) 53평, 25평, 17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010-6317-2741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 점양동 호숫가
● 대지 50평, 건평 약45평
● 2층 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주차장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041)549-9511
010-3915-8090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011-820-4617

탈종공고
● 법 명 : 性德(김권숙)
● 승려번호 : 0304-20024
상기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당 및 철학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삼존불, 탱화, 신중, 산신, 영단완비
● 전세 3000만원, 월15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857-6602
019-293-93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2000평
● 법당 40평
● 산신당, 용왕당 등등
● 가액 : 3억5천5백만원
010-2667-73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대전에서 20분거리)
● 대지 200평
● 건물:신축법당 20평 (삼존불,108나한 봉안) 요사채 2동(구옥)
● 가액: 1억 4천만원
※ 급한 사정으로 제가 양도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부동산 사절)
011-486-1275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구미시
● 대지:800평
● 법당 24평, 요사채 45평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 요사채 에어컨 설치, 심야전기보일러
● 하천부지사용, 주차장 완비
● 가액:2억 5천만원
016-818-3088

사찰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가는길목(도로변에서 70m)
● 산밑 아늑하고 조용한 종교부지 천하명당 절터
● 전기시설 되어있음
● 평수 : 105평
● 가액은 만나서 절충
011-511-6781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후원,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근교
● 산밑 아담한 기도처
※최상급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50평, 법당 15평, 큰방 2, 작은방 1, 주방겸 방 1
● 주불 아미타불 양대보살,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 가액 : 6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603-2992
011-340-5963
017-202-8755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밑
● 종교용지 305평
● 임야 및 전 1700평. 법당 23평
● 산신각 5평, 독신각 2평, 요사채(조립식) 50평, 심야전기보일러
● 특징 : 송림이 울창하고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음
● 가액 : 2억 5천만원
063)625-9992
011-411-0503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 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 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
(일요일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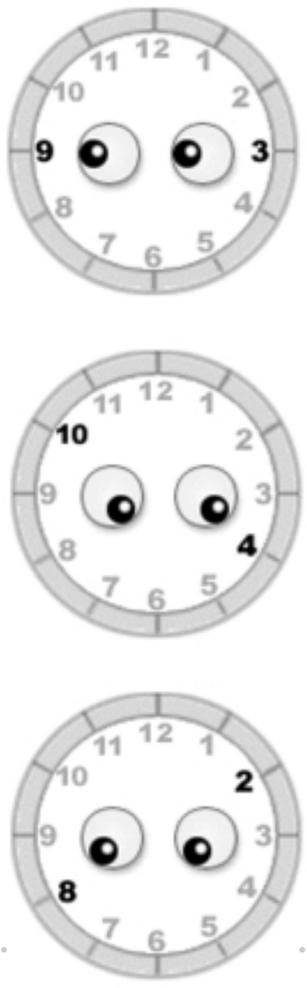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370평 건평 30평
● 신축1동, 구옥 1동
● 국도 인접, 개울물 흐름
● 가액 : 1억3천만원
010-2886-9856
054)873-864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
● 대지 600평, 밭 350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30평 (단청 완벽)
● 삼성각 25평, 요사채 27.5평 조립식 20평 시설완벽
● 석탑, 석불(미륵존불 2분)
● 가액 6억원
016-204-1668

침침한 눈 밝고·편안하게 하려면?

'눈운동·마사지로 피로 푸세요'

황사가 잦고 자외선 지수가 높은 봄철이면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다. 장시간 책이나 컴퓨터를 봐야 하는 학생·직장인들이 안구건조증이나 눈의 피로 누적 등에 노출되기 쉬워 '눈 건강'을 지키기 힘들다.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TV 프로그램을 보는 직장인 홍성규(32)씨. 출근 후에는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인터넷 자료를 찾거나 보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다. 퇴근할 무렵이면 눈이 따끔거릴 뿐 아니라 사물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많다.

고등학생 김진우(18)군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끼고 있는 김군은 평소 눈이 침침하고 눈언저리가 뻐근하게 느껴진다.

컴퓨터·텔레비전 등에 노출된 눈
지속적 조절운동으로 두통유발도

진단 결과 홍씨는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은 화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강한 빛이 눈에 자극을 주어 눈의 피로와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흔들리는 차나 지하철 안에서 작은 핸드폰 액정화면으로 영상을 보게 되면 안구가 지속적으로 조절운동을 하게 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심한 경우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김군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이 앓고 있는 눈 피로 누적, 즉 '안정피로'를 앓고 있는 것. 안정피로는 눈부심을 느끼거나 눈을 깜빡일 때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조금만 눈을 사용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에 핏발이 선다. 또한 눈알이 아프고 초점이 흐려지거나 눈두덩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뒷목 결림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처럼 눈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어둡거나 밝은 조명 아래서 장시간 책을 보면 시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밝은 화면의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는 생활습관도 눈의 피로를 더하게 한다. 컴퓨터 작업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생길 뿐 아니라 눈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될 때도 눈의 피로 현상이 나타난다.

50대 이후에 눈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 백내장일 정도로 안구 질환은 흔한 질병이다. 자외선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화면 등에 무작위로 노출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눈 주위 지압 피로 해소에 효과
녹황색 채소 등 조직 회복에 도움

특히 햇살이 강해지는 봄·여름철에는 자외선지수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쓰도록 한다.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컴퓨터나 책을 본 후에는 10분간 눈을 쉬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가볍게 눈 주위를 손으로 눌러 주는 것도 눈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 비타민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활성화 돼 손상된 눈 조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눈 운동과 마사지>

1. 몇 초간 눈을 감았다 뜬 후 시계방향으로 12시→3시→6시→9시→12시 방향으로 눈동자를 움직인다. 3회 반복한 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3회 반복한다.
2. 눈썹과 눈의 바깥쪽을 엄지나 집게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준다.
3. 양손의 집게손가락으로 감은 눈의 눈꺼풀 위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듯이 누르며 마사지한다.
4. 눈 안쪽과 콧대 사이의 오목한 부분을 집게손가락으로 눌러준다
5.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가볍게 누르며 마사지한다.
6. 뒷목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주면 목의 피로도 함께 풀린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1. 컴퓨터 화면은 눈높이보다 10~15도 아래에 놓고 햇빛이 모니터에 반사되지 않게 한다.
2. 책을 볼 때는 불빛이 왼쪽에서 비치도록 한다.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 눈을 덜 피로하게 한다.
3. 1시간 독서나 컴퓨터 사용 후에는 10분 정도 쉬면서 눈 운동이나 마사지를 한다.
4. 눈에 이로운 비타민 A와 무기질·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완두콩·시금치·오이·당근 등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5. 과일로는 사과·바나나 등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송산노인복지회관, 무료 합동결혼식 접수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일면)는 제3회 무료 합동결혼식 참가자를 모집한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리는 무료결혼식은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월 20일까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031)852-2595

불교상담개발원 '행복한 부부 성 상담'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4월 11일 오후 4~6시 서울 조계사 교육관 2층 4강의실에서 '행복한 부부 성 상담'을 주제로 월례 특강을 마련한다. 김홍숙 소장(BL여성의원부설 성건강센터)이 강의를 맡으며, 현장에서 부부간 성 문제를 상담하는 활동가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 1만 5천원.(02)737-7378



32. 일본의 차 수출

해외 경쟁력 강화 위해 제다협회 설치
차를 茶道라는 문화로 알리기에 성공

19세기 후반 일본은 서구인들의 기호에 맞는 홍차를 제조하여 홍차와 녹차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계속적으로 각국에 사람을 파견해 그 지역 국민들의 기호와 판매 방식 등을 자세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결과로, 차를 많이 마시는 러시아는 일본의 차 주요 수출국이 된다. 본래 러시아 사람들은 귀족에서 가난한 농민에 이르기까지 차를 좋아해 하루에도 5~6번씩 많은 양의 차를 수시로 마신다. 금속으로 만든 사모바르라는 찻물을 끓이는 주전자는 러시아 여성에게는 필수품으로, 가정마다 있어 주로 홍차나 중국산 벽돌차를 끓여 마셨다. 일본은 주로 홍차와 벽돌차를 수출하여 차의 수출량을 꾸준히 증가시킨다. 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영국에 이어 차 소비량이 2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차가 품질이 떨어져 오래 우려먹을 수가 없고 향기가 약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한다. 인도·실론 차에 뒤떨어진 일본 홍차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러시아 차 시장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


차를 저울로 달고 있는 일본 상인들 (19세기 후반기).

한편 일본 녹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본래 차보다는 커피를 더 선호했다. 1898년~1902년에는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일본의 차 관세 폐지 요구가 관철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녹차와 홍차가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일본차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수출 증가를 가져오지만 차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이물질 첨가와 우려먹은 차에 색소를 첨가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또한 일본차에서 검출된 착색용 색소가 유해하다는 보도로 인하여 일본의 차는 신용이 떨어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 일본의 차는 몰락하고 불경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일본은 제다협회를 설치하여 제다와 포장에 까지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 캐나다와 미국에 새롭게 수출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영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홍차는 미국 시장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었다. 1909년까지는 녹차 소비가 홍차에 비하여 2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1910년 이후부터는 홍차 소비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홍차와 녹차의 경쟁은 만국박람회에서도 드러난다. 실론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렸으나 일본식 분위기를 살린 실내와 정원을 갖춘 일본관은 성행을 이루지 못한다. 설탕의 단맛에 익숙한 서구사람들은 일본 녹차보다는 홍차를 더 선호하였고 서구인들에게 일본식 녹차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영국은 이미 건강에 좋은 홍차 성분에 대하여 광고를 했다. 홍차에 대한 반응은 더욱 커졌다. 그 당시 미국의 여성들은 건강에 좋은 음료를 더욱 선호하였으며 녹차 보다는 홍차를 더욱 마시게 되었다. 일본의 차는 미국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인의 대중화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차는 서구인들의 입맛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자, 일본은 차를 물질이 아닌 정신적 측면으로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의 동양부 고문으로 있는 오카쿠라 덴신은 <차의 책>을 저술하여 차의 정신과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동양의 아름다움이 들어 있는 문화라고 소개했다. 차즘 다도(茶道)가 일본 문화로서 국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인들이 다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7. 4. 11 (수·목반)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부동산풍수

패철층별해설, 88향법, 현공풍수, 양택 등
풍수의 모든것!!!

■ 수 강 료	30만원
■ 교육시간	A반(저녁반)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10시 직장인반 B반(오후반)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장소	라이프 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 종로구 숭인1동 55-6, 지하철 6호선 창신역 4번 출구 100m)
■ 개 강 일	2007년 4월 26일(목) 오후 7시
■ 접수문의	라이프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 ~ 2 담당교수 : 박 상 건 011-246-1079 (현 한미교육교류재단 겸임교수, 라이프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특 전	○ 수료생 전원 동방철학연구학회 정회원 및 동문회 가입 ○ 미국 LU대학교 교육과정 인증 및 유학 가능

라이프평생교육원
www.lifeschool.co.kr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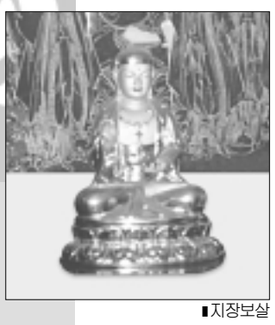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단청, 탱화, 불상, 개금
탱 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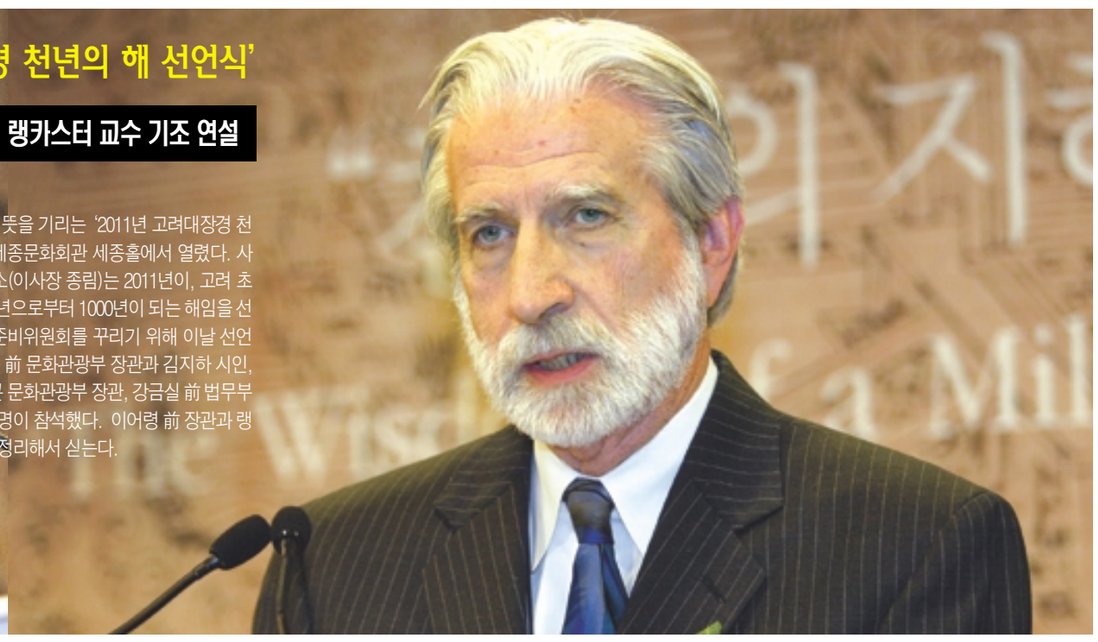

▮지장보살


▮신중탱화

불 사 상 담
▮02)918-4077/011-702-4077
화공 朴商洙 합장
서울 성북구 정릉3동 684-36

“생활 속에서 보고 뜻 기리는 대장경 탄생하길 ”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 랭카스터 교수 기조 연설

“천 년의 지혜를 천 년의 미래로!”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의 역사와 뜻을 기리는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이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011년이, 고려 초조대장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1011년으로부터 1000년이 되는 해임을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준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이날 선언식을 마련했다. 선언식에는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지하 시인, 남궁석 前 정보통신부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등 학계 • 문화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령 前 장관과 랭카스터 교수의 기조연설문 내용을 정리해서 싣는다.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前 문화부 장관)

‘고려 공사 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조금 지난 후에는 흐지부지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짙은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경전들이 편찬됐지만 소실되지 않고 전하는 것 중 대장경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 중에서 고려대장경은 가장 오자가 없는 인쇄물입니다. 가장 정확한 판각 인쇄물이라고 한다면 고려대장경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초조대장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애석해 했습니다. 하지만 재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 보다 더욱 더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較正)을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기회에 어깨너머로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쳐주는 증거품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 새천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저는 ‘천년’이라는 말이 기독교와는 또 다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려 가사에는 ‘즈믄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千)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즈믄’인 것입니다. 오늘 고려대장경 조성을 발원한지 천년이 되는 것을 기리는 이유는, 즈믄이라는 것이 사랑과 영원이 담긴 한국인의 정신적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려대장경이 갖는 즈믄 해의 행사는 세속적인 행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2011년에는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聖)과 속(俗)을 넘나드는, 종교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뛰어 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만대장경판 뒤에는 시주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천 년 행사가 종교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남은 4년 동안 온 국민이 발원해서 자기의 대장경을 봉헌하고, 직접 생활 속에서 보고 뜻을 기릴 수 있는 새로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대장경은 단순히 종교 경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와 보존기술이 결집된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연구하는 것도 아울러 함께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려대장경 조성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원에 의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당시 민중들의 역량과 결집력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經 중 가장 정확한 인쇄물
종교 벗어나 우리나라 문화의 결정체
큰 프로젝트 이룬 민중들 연구도 필요

특히 몽고의 침입에도 고려대장경을 조성하고 이를 소실되지 않게 전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고려인들이 꿈꿨던 생명의 아픔을 초월하고자 하는 창조적 욕망, 그 어떤 전란도 태우지 못한 대장경의 영원한 존속의 꿈을 기리는 자리가 이 작은 모임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1년 행사에는 전세계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

오늘의 이 선언식은 앞으로 2011년까지 추진될 여러 행사와 기념사업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나간 천 년이라는 시간과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전해지고 있는 초조대장경을 생각할 때 이는 실로 위대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91년 북송 개봉(開封)에서 온 사신이 당시의 신 인쇄기술로 제작한 불교 경전 2000여 권을 전했을 때 고려 개성 사람들이 느꼈을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송으로부터 대장경 인쇄본 한 질을 받고 나서 고려는 자국의 목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채 십 년이 지나지 않아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목판인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의 문화 수용 능력 기려야
남은 작업 기간 중요…인경 복제에서
디지털 복사로의 기술 변화 보여줘야

오늘 우리는 1011년 실제로 목판을 새기기 시작한 일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것은 목판인쇄술을 자국의 문화기술로서 완전히 소화해 받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위대한 성과인 동시에 목판의 제작을 통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몽고의 침입 시에 고려인들이 처음 만든 목판대장경이 소실된 것은 세계문화사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짧은 시간에 강화도에서 재조대장경판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초조대장경은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왔고, 그것을 찾으려는 제대로 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11세기 고려 경판의 인쇄본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지방 박물관에서 발견된 초조대장경 인본 수백 권과 교토 남선사 수장고에서 전하는 2000여 권의 인쇄본이 확인된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이들 인쇄본을 통해 101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초조대장경판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현존하는 3000여 권의 초조대장경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촬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어 2011년에는 복원 출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까지 남은 기간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1년을 기념하는 일은 인쇄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불교 및 문화 자료를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예전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아시아 종교사가 정보의 유포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 기술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초조대장경판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1011년의 바로 그 순간은 중요한 전환점이요, 분기점이었습니다.

1011년 고려는, 손으로 글 쓰는 것으로부터 인쇄를 통한 대량복제 체제로 그들의 관심을 이동시켰습니다. 2011년엔 우리는, 책자 형태의 종이 복사에서 인터넷에 존재하면서 세계 수 천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복사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세기 선조가 이룬 공헌을 바르게 계승하게 됩니다.

2011년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든 고려인들의 업적을 오늘날 우리도 해낼 수 있음을 다가올 미래에 제시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건강슬리퍼
발볼조절가능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대행스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음을 역력히 알아야!

부처님을 숭상해야 하는 이유

문 내 안에 근본이 있고 그 근본이 이 우주 전체의 근본과도 둘이 아니라면 왜 부처님을 숭상해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하나요? 내 근본을 믿는 마음 하나면 될 것 같은데요.

답 가정에서 변소엘 가나 법당엘 가나 어디를 가든지, 딴 사찰엘 가든지 딴 기독교엘 가든지 간에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가짐 가짐을 그대로 갖기를 원했고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런다고 해서 덩달아 부처님 불상을 불신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람을 갖다 업신여긴다거나, 아는 사람을 높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런 가짐 가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누구나가 불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이나 또는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력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나 여러 부처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 것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린다 할 때, 예라는 것은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에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없다면 바로 송장이 될 것이고 분별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이 삼합이 바로 삼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종합돼서 우리가 한데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이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 내공에 모든 걸 예배 올린다 하는 건데,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내공의 부처님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원에, 어느 도량에 갔다 하면 벌써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해서 혼자 먹는 거 보셨습니까?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자기 개별적인 능력이 아니라 같이, 불성도 똑같고 같이 움죽거리고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각각 먹지만 하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도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릴 때에, 예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음이니, 내 내공과 부처님의 내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다가 예배를 올리는 거죠. 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 무엇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뜻이 그겁니다. 혼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님께서도 49년 설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웠건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을 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풍기고, 온 누리를 비춰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고 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공의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전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느냐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더 행을 잘하시고 말도 더 잘하시고 더 우주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제쳤다, 뒤집었다 제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과 부처님의 그 내공에, 그 마음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 자체와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삼 배를 올릴 때, 예전 같으면 삼 배를 올리고 난 뒤에 뒷걸음질을 일곱 번을 치고 다시 돌아서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나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닌 윗자리에다가 예를 올리고, 배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신과 마음, 사량적인 이 마음과 육신이 거기 그저 '예배 올립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뿐만 아니라 삼세 부처님들, 조사들, 선지식들한테 위로는 예배를 올리고 아래로는 자기를 자기가 굴복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도리라고, 진정한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어째서 갖다가 올려야만 하느냐. 그럼 마음으로만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만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만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잡숴요. 그리고 벌이 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어디까지나 부처님 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밥을 먹되 내가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예를 올리고, 한마음 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에 삼세의 부처님들을 다, 유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짐없이 한데 합쳐서 내 내공에 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을 다 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절에 오면, 벌써 법당에 올라가면 밥 한 그릇을 올리고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안팎이 없이 그렇게 겸손하고 알뜰하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법당에 와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만치 아무렇게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못 쓴다면, 향 한 개비, 초 한 자루를 꽂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의 심지가 바로 댁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심지가 마음이면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가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따뜻한 기운이 나오며 어떻게 빛이 비칠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켜지 말고 마음으로만 켜세요, 잘 켜질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팎이 없이 켜라 이 소립니다, 안팎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배를 하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자기 자성불에, 포괄된 자성불에게, 우주를 덮고 있는 자성불에게 예를 하고 배는 자기 몸뚱이, 육신이 다, 사량이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벨 때의 마음가짐

문 도로 공사를 할 때 땅을 파고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 근래에 봄이 되어서 서울 외곽의 공사를 하느라고 산의 나무를 여러 그루 베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 또한 살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를 벨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 이게 우리가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나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목신(木神)이라는 것도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게 상대성으로 아픔을 느끼고 상대성으로 원수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이 되죠. 살인마가 되는 거죠. 남의 거 돈 안 내고 훔쳐 오면 도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관법(觀法)을 가르치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동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즉 말하자면 이 일체 주인공에다 모두 놓는 거는 주인공이 포괄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공동 부담이 되는 거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살생을 했고 어느 사람이 살생을 안 했고 이게 없어요, 공동 분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놓고 하면, 그냥 주인공에다 놓고 하면 그냥 그 목신(木神)의 무명이, 나무라는 목신의 무명이 벗겨지죠. 그건 잘라서 다른 걸로 쓰고, 그 생명의 근본은 그냥 여기다 넣으면 그냥 한 찰나에 사람이 돼 버려요. 사람이 돼서 그냥 또 다시 배출이 되죠, 인도환생으로. 사람의 이 마음에다가 천만 개의 영령(英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 하나가 공(空)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가 공했는데. 그것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넣은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드러지지 않죠. 그리고 꺼내고 꺼내도 줄지도 않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나면 다리를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죠? 그와 같이 나무를 갖다가 이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한다면 마취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무라는 그 자체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사람으로서 화(化)하게 되는 거죠. 나무도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접한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아주 단생의 나무가 있고 그런데, 모두 생명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벗겨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건 그것대로 나무로 쓰고요, 또 소는 소대로 고기로 약으로 쓰고요, 또 소의 무명은 벗겨 주고요. 그러면 에누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고받았

☞22면으로 계속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전大乘經典과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전진도全眞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닦아 갑니다. 무원無願 · 무상無常 · 공空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본성本性을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끌어모아, 대도大道로 들아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혜慧는 성性을 밝히는 것이고, 정定은 명命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定과 명命을 닦고, 연후에 혜慧와 성性을 닦아 밝혀나갑니다. 처음에는 명공命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내공으로 갈수록 성공性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열어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14(토), 15(일), 18(수), 19(목) 오후 7:00~9:00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4. 20(금) 오후 7:30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유불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簡易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와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저녁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소림오법, 오음곡 /108식 호흡 유불선 경전 강독

*수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themahayana.org
대승회 지유와 나눔
대 승 회 는
유불선을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 유 와 나 눔 의 모 임 입 니 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암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

현대불교신문 지사모집 안내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1) 모집 지역 (세부지역은 별도협의)
- 강원 : 남부 – 원주,정선,영월,평창 일원, 북부 – 춘천,철원,양구,화천,홍천 일원
- 경기 : 남부 – 안산,화성,용인,안성 일원, 북부 – 포천,연천,동두천,파주 일원
- 충북 : 제천,음성,진천,괴산 일원
- 충남 : 서산,아산,당진,예산,청양,보령 일원
- 경남 : 마산,창원
- 전남북 : 광주지역/나주,목포/순천,여수/전주,익산 일원
- 제주도 전지역

2) 포교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추천서(스님/단체장),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사진 2매
- 제출기한 : 2007년 4월 30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30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제 출 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이동격 차장
- 전화 : 02)2004-8214 / 팩스: 02)737-0696 / 이메일 jabi1522@empal.com

현대불교신문사

마치 아닌 마치로 톡톡 때려서 모든 걸 근본에 놔라!

☞21면에서 계속

으니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죠? 상점에 물건 사러 가서 그 돈 주고 물건 가져왔는데 도둑놈으로 몰릴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생각해 보면 아주 정의정당하고 질서적이고 도의적이고 의리적이고 빈틈이 요만큼도 없는 삶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천세계로 넘어서려면…

문 불교 교리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삼계를 하천, 중천, 상천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인 중천세계에서 벗어나 상천세계로 넘어서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이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화탕지옥이 따로 있고 오간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간지옥은 그 안의 지옥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화탕지옥이고 무슨 지옥이고 무슨 지옥이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천세계는 어떠한 거냐? 이 중천세계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 중천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종류도 많지만 차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의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얼마나 헤매고 돕니까? 또 내 마음으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교도소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마음으로 잘못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고가 많습니까? 자식들이 괴롭혀서 괴롭고, 부부지간에 괴로워서 괴롭고, 부모자식지간에 괴로워서 괴롭고 여간 많지 않습니다, 종류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괴롭고, 남이 나를 떨어뜨려서 괴롭고, 내가 남을 떨어뜨리니 괴롭고. 연방 같이 상대로 이어져 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밑에서 치받히고 위에서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 지속된 중세계의 이 맛을 우리 지금 인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세파에서 왜 이렇게 중두난발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게끔 만들어지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몸체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각자 인연에 따라서 5억이라는 생명이 자기한테 부합이 된 겁니다, 이게. 자기 인연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부합이 되고 은은 은대로 부합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부합이 되고. 이렇게 부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단체가 된 것이죠. 단체가 돼서 이룬 것이 이 집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 이 집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인연에 따라서 집을 지어 가지고 딱 내가 거기서 한생각에 이것이 잘되면 몽땅 이게 한데 합쳐서 하나로 뭉쳐져서 상천세계에 이르고 부합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로.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상천세계가 아니라 중천세계에서 윤회에 끄달리면서 돌아간다면 이 씨가 그냥 중천세계에 떨어져서 그냥 모두가 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대로 이것도 같이 부합이 돼서, 만약에 내가 넝마의 차원이라면 넝마의 차원으로 이 씨가 여기의 모든 것이 부합이 돼서,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내가 나의 그 씨를 만든 것이 바로 넝마씨니까 내가 가는 대로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뱃속에다 넣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마찬가지, 살아도 마찬가지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집합된 한 단체에서 내가 한생각에 이것이 은이 되느냐 금이 되느냐, 무쇠가 되느냐 넝마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자기 공에다가 모든 걸 놔라!
> 믿고 놔라!
> 믿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
> 놔야만 상천세계에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이 중세계라는 이 뜻이. 갈림길인데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상천세계에 가느냐 이겁니다. 상천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상천세계를 응시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원을 못 가듯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못하게 돼서 못하는 결과도 있죠. 그것도 자기 업보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중두난발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도 질서 있게 차원대로 잘 이끌어서 돌아가고 있죠. 우리 콩팥에서 돌아가고, 또 간에서 돌아가고, 또는 직장에서 돌아가고, 위에서 돌아가고 이 오장육부에서 다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구 벌레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지구도 우리 한 몸뚱이로 비유해 보세요. 꼭 우리 몸뚱이와 한가집니다, 지구 한 혹성이. 인간은 왜 불성이라고 했을까? 요건 작게 모인 단체입니다. 생명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큰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성, 불성 이렇게 말을 하죠.

뾰족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상천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당신 몸에 5억이라는 그 생명체가 당신의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한데 합쳐졌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그네들이 다 나로부터 같이 모여진 자체의 하나로 뭉쳐서,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돌아갈 때에 그 난소를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5억이 돈다 이겁니다. 5억이 돌아서 하나 골인될 때에 전부 물체는 없어지고 자기 근본만 한데 합쳐집니다. 근본에 근본이 한데 합쳐지면서, 이 물체는 하난데 이 근본이 한데 합쳐지니까 하나로 될 수밖에. 하나로 돼서 이것이 임신을 해서 낳을 때 다시 자기 인연에 따라서 뭉친 그, 영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자랄 때 다시 분배돼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우리 뱃속에서 지금 오장육부에서 세포를 타고 또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제각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각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작용을 하고. 모든 걸 작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작용을 내게 하는 고놈이 누군가 하는 거는 바로 그 5억이라는 게 한데 융합이 돼서, 한데 합쳐져 가지고 공해서 돌아가니까 바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을 어떠한 데다가 기준을 두느냐. 어떤 데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간에서 생각이 나오고 콩팥에서 나오고 이렇듯이, 이게 어느 한 콩팥 동네라면 이 동네에서 야단 저 동네에서 야단 이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돌아가는 대로 여기는 자꾸 생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기나 컴퓨터나 이 영사기나 녹음기나, 이 문제가 여기에 오관을 통해서 다 있다는 얘깁니다, 무전기도.

그러면 이 우주간 법계가 다 뚫렸다는 얘깁니다. 통했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우리가 여여하건만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마음이 나는 대로 요동이 나는 거죠. 자꾸 망상이 생기고 그러는데,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오직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마치 아닌 마치로 톡톡 때려서 그냥 모든 걸 거기다가 놔라 이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공으로 이름을 했다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 그렇게 5억이라는 것이 나한테 실체로 지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면서도 5억이고 5억이면서도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고정되게 한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 속에서도 고정되게 한 분야만 맡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말하고 몇 번씩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달라요. 만나는 대로 마음이 달라지는 걸요. 그게 근본적으로 아주 자동적이죠. 즉 말하자면 이 작용을 하는 것이 근본 이 장소에서만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옛적에, 즉 말하자면 억겁 천년 전에서부터 작용을 해서 나온 장소도 이 장소요, 억겁 천년 전에서부터 그 작용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옛 물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고 옛 산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내 화두, 이 자체가 바로 공입니다. 이 내 몸뚱이 자체가 그대로 공입니다. 색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 공이에요. 색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공이라 이 소립니다. 공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자기 공에다가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믿고 놔라! 믿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놔야만이 상천세계에 등장할 수가 있다. 삼세심이라고 하고 삼세심을 일심으로 부합시킨다면, 일심! 즉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살 양으로 애를 쓰고 어린애를 낳을 양으로 애를 쓰고 낳느라고 아파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일심으로 돌아가는 그 일심 자체도 없는 그 상천세계에서는 생각해서 먹고 생각해서 살고 생각해서 갖고 생각해서 모든 걸 가고 오니 얼마나 편리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발버둥이 쳐야 할 일이, 이건 죽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니, 이왕지사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전쟁터에 칼을 빼고 나온 셈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이왕지사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와 불법 공부에 대해서

문 전해 내려오는 수행법 중에는 몸의 기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공법을 수련하는 것과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기'라는 건 옛날에도 그렇고, 스님네들 아니더라도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를 가지고 몸을 다스렸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는 기를 단전으로 해서 기를 이렇게 모아서 풀어 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세상에 어려우냐. 지금 단전을 하고 기를 모아서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머리로 기가 그냥 올라가서 영 일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몸이 비틀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귀로다가 그냥 그 뜨거운 게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이 아주 파탄이 오게 되는 사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몸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몸의 기를 잘 다스리려면, 정돈을 하고 잘 다스리려면 바로, 몸에 들어있는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는 몸을 다스리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 있는 그 의식들, 생명들 그것들이 아랑곳 없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선원에서는 관법(觀法)을 가르칩니다. 이 마음으로써 내가 꼭 '너만이 알아.' 할 때에 '아, 너고 나고 없구나. 모두 나야!' 하고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 놓으면 이 누진(漏盡), 머리로다가 통신이 돼서 그 머리로 통신이 되면 하달이 돼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을 만하냐? 이거는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저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보태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고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깐 몸을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살이 쪘으면 살을 뺄 수도 있고, 살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몸뚱이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몸이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행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무정물들도, 또는 저런 과일 나무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용이죠. 그러니 몸도 얼마든지 자재로이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그냥, 그냥 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만성피로, 뒤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심장, 폐, 간장, 췌장, 신장, 비장, 위장질환, 소장
요추 변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선추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계통
미추 직장, 치질, 꼬리뼈의 통증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4월 12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4주)
● 1박2일코스 : 2007년 4월 12일 오후 2시 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알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FTA, 기회 혹은 화근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에 비유된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 지푸라기도 돌멩이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황소까지 떠내려간다. 어쩌면 자유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개혁의 촉매제'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느슨해진 한 · 미간의 안보체계를 경제적 끈으로 얽어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철폐의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 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형식 내용도 중요하지만 밑에 숨어있는 개방의 잠재이익 또한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개방의 폭이 한국 측에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한 체결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 의료등 핵심적인 서비스 분야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분야에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법률시장 개방도 단계적으로 한다지만 결국 미국의 텃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섬유, IT, 디지털TV, 부품 소재 부문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농수산업, 제약부문에서 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화학, 가죽, 모피, 기계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자동차, 철강, 전자, 신발 등에서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에 458억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2000년 3.3%에서 2006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한편 중국은 2000년 8.6%에서 2006년 15.5%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4.9% 관세부담이 없어지고 수출품통관절차가 48시간이내 끝나도록 되어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 기술력만 있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황금의 기회'인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의 기초가 있는가가 문제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대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가에 달려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한국의 경제가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남미가 미국에 종속되었듯이 우리도 종속관계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비준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이번 협정을 보수세력은 잘된일로 평가하고 진보세력은 비난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비준과정이 자유무역협정체결만큼 어려운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의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도 국회비준이 최대변수이다. 1994년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지만 개방을 경제활동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또 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이 없어 멕시코의 경제는 나아진 것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주는 것이고 잘 활동하면 기회가 올 수 있고 잘못적응하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6. 서구의 종교 인권의식 타산지석 삼아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자유 · 정교분리 서구인들의 뼈아픈 경험의 산물

2003년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는 정치적 · 종교적 중립이 상호 지켜져야 한다는 이른바 '세속주의(secularism)'에 충실하기 위해 공립학교와 직장에서 교사나 공무원들의 히잡(이슬람 여성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에는 영국 정부가 종교적 증오 유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국은 최대 7년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는 '인종 증오 유발 금지법'을 이미 1986년에 제정한 바 있는데,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 또는 차별행위의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종교적 증오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종교중립에 대한 서구인들의 엄격한 태도는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해할 것도 같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치러진 전쟁이 얼마나 많았던가. 특히 종교전쟁이 그 어떤 전쟁보다 비참하다는 사실은 유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친 종교전쟁인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시작되어 1270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치러졌다. 1099년 예루살렘에 입성한 십자군은 무슬림과 유대인까지 남김없이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웠다. 이때 십자군 기사들은 "우리는 말을 탄 채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피의 강을 지나갔다. 솔로몬 사원은 오랫동안 이단자들로부터 불경스러운 모독을 당해왔으니 이단자들의 피로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훌륭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며 살육의 환희에 울부짖고, 심지어 인육을 요리해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다고 한다.



숭실대 채플강요 학칙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

지금 생각하면 그 광기어린 잔혹성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지지만 그 당시 그들에겐 얼마나 거룩한 전쟁이었겠는가. 1572년 프랑스에서 신교도 수천 명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무자비하게 떼죽음을 당한 '성바돌로매의 대학살' 사건도 인류 잔혹사 중의 하나이다. 중세 이후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의 결정판으로 역사상 제일 치열했던 종교전쟁은 신 · 구교 간의 소위 '30년 전쟁(1618~1648)'이었다. 이 파괴적인 전쟁은 유럽 대륙 거의 전역에서 벌어졌으며, 종전과 함께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유럽의 종교 유혈극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종교자유와 정교분리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789년 혁명 때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할 때 성경 대신 법전에 손을 얹는 것도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근거한다. 종교전쟁의 그 처절함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확보된 셈이다.

오늘날 서구에서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의 피를 통해 얻어낸 것이기에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자유이다.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한 종교를 선택할 권리만의 문제가 아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양심의 자유이자 물러설 수 없는 인권이었던 것이다. 인권학자들도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인권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역사의 현장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특히 서구문명의 발달사가 종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현대적 종교 인권개념은 유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구사회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는 그들의 뼈아픈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꼭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마음 속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법적 · 제도적으로 철저히 해두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종교박물관이라는 우리나라의 '종교자유-정교분리' 지수는 어느 수준이나 될까. 우리는 종교자유에 관한 유럽인들의 별나다고 할 만큼 철저한 태도를 두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면서 남의 일처럼 느긋하게 말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싶다. 서구사회의 종교 인권 의식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일으키는 일차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들 중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목회자가 85%, 평신도는 92%에 달한다고 한다. 1910~20년대 미국의 선교사들이 서구종교 우월주의에 기반해 전통적 신앙을 비난하고 말살하고자 가르쳐준 대로 너무나도 철저히 믿고 따르는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인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라고 한다. 지구상의 기독교 중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 다음으로 배타성과 공격성이 강한 배경이며 우리 사회의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이다.

불자의 눈

태고종의 세계화를 기대한다

태고종이 세계를 향한 웅비의 날개를 폈다. 최근 태고종이 아메리카 유럽 종무원을 개설하고 미국 현지에서 학문연구와 포교에 매진해 온 종매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캐나다인 오스트리아인 등 외국인 사미와 사미니 수계식도 가짐으로 명실공히 세계화의 디딤돌을 놓았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 10개 이상의 종단 사찰이 지어졌고 종도들 또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종무원을 설치하고 종단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종도 개인의 원력에 의한 해외 포교의 틀을 종단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창되어 왔고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대거 해외 포교에 뛰어들어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제 태고종이 아메리카 지역과 유럽 지역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한국불교의 해외 활동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초종파적인 원력으로 추진되어 조계종이 겪어온 시행착오를 벤치마킹 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태고종의 세계화는 태고종의 장점을 제대로 살려내는데서 성공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 전통의식 등의 종단 파워를 문화포교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태고종의 해외 포교 마당은 날로 넓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고의 상담가는 최고의 포교사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받아들였고 중생들의 아픔을 가장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불평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고 욕설을 퍼부어도 욕설로 그와 맞서지 않았다. 찾아와 법을 묻거나 자신의 신상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논리 정연한 말씀으로 감복 시켰고 다정다감한 언술로 깨우침을 전했다. 부처님의 상담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온함을 전달하는 최고의 명약이기도 했다.

오늘날 스님들의 상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수행자에게 상담이 필수일 수는 없다. 그러나 포교 현장에 나서는 수행자라면 상담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부처님이 일생 길에서 상담을 하며 중생을 교화 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앙 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전문상담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내에 교육장을 설치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호응하여 학인 스님 1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니 반갑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 학인 스님들이 부처님의 상담기법을 제대로 배워 포교 현장으로 나온다면 불교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이다. 이 찾아가는 교육의 성공을 기원한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정해년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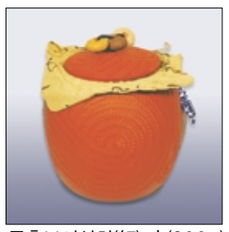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福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체로 글자 하나 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지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字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廷潭스님 서예작가 약력
· 2002년 대한민국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2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 (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전 출품 북경공예미술대학 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께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리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한폭세로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선승禪僧의 길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시다.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不昧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끄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el: 02)2004-8246(출판부), 02)2004-8219(영업부), Fax: 02)737-0696

여시아문